

리아호나



리아호나



표지

앞 그림: 데이비드 린슬리, 요셉 형제.
뒤 그림: 엘 파슨, 암숙하게 기도하는 요셉과 올리버.



친구들 표지

4쪽의 '루스 카리나 산체스, 파라과이 야구아론' 참조.(사진 촬영: 리처드 라이먼, 매리 앤 웨튼 라이먼)

14쪽 참조

일반

- 2 대관장단 메시지: 길을 예비함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14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가분의 증거들 존 엠 매드슨 장로
- 25 방문 교육 메시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
- 28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
- 30 말일성도의 소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행함
물문경과 나의 개종 관메 오프레
사랑과 외눈박이 괴물 케이크 니키 오 넬슨
나는 위로를 느꼈다 — 하지만 왜? 엘런 엘 올슨
- 38 충실한 최초의 신자들 도날드 엘 앤더스
- 48 리아호나 2001년 2월호를 활용함

청소년란

- 8 영국에서 복음의 뿌리를 찾아냄 재닛 토마스
- 22 질의 응답: 사랑이 충만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왜 죄없는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나요?
- 26 아빠와 복음을 나눔 실러 알 우다드
- 36 말씀에 말씀을: 출생 이전
- 46 모범의 힘 카를로스 페레스

친구들

- 2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요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 들로리스 드빅토리아
- 4 친구 사귀기: 루스 카리나 산체스, 파라과이 야구아론 매리 앤 웨튼 라이먼
- 7 이야기: 때로는 다른 것이 좋아요 재니스 포터 헤이스
- 10 함께 나누는 시간: 예언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여 말씀하신다 다이앤 에스 니콜스
- 12 신약 성서 이야기: 예수님과 그의 하늘 아버지의 집; 니고데모
- 16 "이 여러 계명을 상고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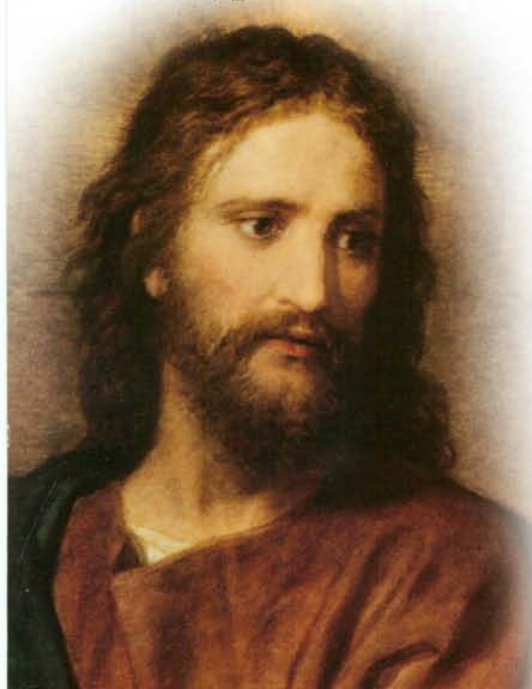
46쪽 참조



8쪽 참조



38쪽 참조



리아호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임.

대판장단: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십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톨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엘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런, 리처드 지 스킵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편집인: 말린 케이 켄슨

고문: 에프 엔지오 부시, 존 엠 매드슨, 알렉산더 비 모리슨

교과 파정부 관리자:

관리 책임자 : 로널드 엘 나이튼

편집 책임자 : 리처드 엘 롬니

그래픽 책임자 : 앨런 알 로이브로그

편집 스태프:

관리 편집인 : 미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 알 발 존슨

부편집인 : 로저 테리

편집인 보조 : 제니퍼 그린우드

편집/제작 부장 : 베스 데일리

출판 보조 : 코니 셰익스피어

편집 보조 : 레너 제이 커티

디자인 스태프:

잡지 그래픽 부장 : 엘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 스킵트 벤 캄펜

선임 디자이너 : 세리 쿡

디자이너 : 태드 알 피터슨

제작 부장 : 제인 앤 피터스

생선 :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테니즈 커비, 제이슨 엘 워

포드, 디나 엘 소렌슨

디지털 표정 인쇄 : 제프 마틴

구독 담당 스태프:

책임자 : 케이 더블류 브릭스

해부 부장 : 크리스 크리스티슨

부장 : 조이스 켄슨

통 권 : 제 419호, 제 38권, 제 2호

등 록 :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 2001년 2월 1일(월간지)

발행인 : 최윤환

편집인 : 정동찬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 삼립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1,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27,0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5,4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37,2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과(☎ 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을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International magazine, 50 East North Temple, Floor 25,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또는 E-mail, CUR-Liahona-IMag@ldschurch.org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알바니아어, 알하라어, 불가리아어, 세부어, 중국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에스토니아어, 피지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히타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카리비시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마셜어, 노르웨이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사모아어, 슬로베니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타이어, 통가어, 우크라이나어, 베트남어 (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2001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February 2001 No.2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3.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마노 형제의 죽음

1999년 8월호에 실린 알 발 존슨의 기사와 뉴칼레도니아에 있는 회원들의 사진을 즐겁게 보았습니다. 우리는 피지로 전근 발령을 받기 전에 뉴칼레도니아에서 일 년 동안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기사에서 나온 지도자 중 한 사람인 티후마노 마노 형제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슬펐습니다. 우리는 마노 형제님의 가족과 친구 그리고 뉴칼레도니아에서 봉사한 선교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럴드 장로와 제넷 헨슨 핀린슨 자매,
피지 수바 선교부

함께 나누는 시간 기사들이

어린 구도자들에게 도움이 됨

저는 매일 리아호나(스페인어)에 실리는 기사에 대해, 특별히 **함께 나누는 시간** 기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린 구도자들을 가르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어린이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주제와 그림과 게임들을 그들과 함께 나눌 때 가장 큰 관심을 보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회장으로 4년 동안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하고 중요한 잡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름과 공과, 교회의 중요한 모든 일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셀레네 비알로보스 데 퀴네스,
푸에르토리코 파자르도 지방부,
파자르도 지방부



"훌륭한 성품"

저는 1999년 3월호 리아호나(포르투갈어)에 실린 "훌륭한 성품"이라는 기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두려움이나 부끄러움 때문에 오랫동안 감추어 온 저의 재능의 가치로 진정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 잡지에서 그토록 흥미롭고 훌륭한 기사를 읽게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는 제가 정말로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잡지는 저와 다른 청소년들에게 큰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저는 이 잡지의 복음 메시지가 미래의 저의 선교 사업의 기초가 되리라는 것을 압니다.

앤더슨 비스포 도스 산토스,
브라질 살바도르 노스 스테이크,
카에타노 와드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하여 배움

저는 17세로, 교회 회원이 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리아호나(스페인어)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하여 배우는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잡지를 읽을 때마다 이 책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 주는 나침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로널드 루이스 히노스트로사 포투나,
페루 리마 산루이스 스테이크,
볼라르 와드



길을 예비함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저는 초등학교의 일을 매우 좋아합니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어린아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가운데서 생활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들은 모든 어린이들에게 개인적인 확신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노래하도록 가르칩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 ...
길을 찾아가게 저를 도와 주소서.
주와 함께 살도록 가르쳐 주소서.¹

초등학교 교사들이 보여 주는 커다란 사랑의 하나는 소년들이 아론 신권을 받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도에 따라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개조를 외웁니다. 여러분은 그것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두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²

“우리는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 그리고 만민에게에의 선행을 믿는다. 진실로 바울의 훈계를 따르다 할 수 있으니, 우리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이

침례 요한은 신앙, 회개, 침수로써의 침례, 그리고 성신의 은사를 전파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들이 보여 주는 커다란 사랑의 하나는 소년들이 아론 신권, 즉 침례 요한이 가졌던 것과 똑같은 신권을 받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함께 읽을 것

미 모든 것을 참아 왔으니,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기를 원한다.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고 듣기 좋으며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 않는다.”³

우리를 인도해 줄, 신앙개조보다 더 굳건한 기초와 더 근본적인 철학을 생각해 낼 수 있습니까? 교사들이 각 어린이들에게 이 같은 표준을 알고 진실로 그에 따르는 생활을 하기를 기대할 때 교사들은 참으로 놀라운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곧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⁴는 명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론 신권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그와 같은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까? 아론 신권이 청소년의 생활에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까? 아론 신권은 “멜기세덱 신권에 부속된 연고니, 외형적 의식을 집행할 능력이 있”⁵습니다. 침례 요한은 아론의 후손이며 아론 신권의 열쇠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론 신권의 중요성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하여 요한의 생애와 사명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랜 옛날, 먼 나라 팔레스타인 땅에 있던 속국에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소는 광야였고, 때는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유대왕 헤롯의 시대인 이 때에 사가라라 하는 제사장과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⁶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두 사람은 자식을 바라고 있었으나 그들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 그들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가라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이같이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사가라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

“...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⁷

엘리사벳이 잉태했습니다. 때가 되어 아들이 태어났고, 천사가 지시한 대로 그를 요한이라 불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의 중 요한의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도 거의 없습니다. 요한이 태어난 후부터 광야에서 성역을 베풀기 시작할 때까지의 전 기간, 즉 30년

동안의 그의 역사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다음의 단 한 문장에 기록된 내용이 전부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리라”⁸

그의 복장은 고대 선지자들의 복장과 똑같이 약대털로 짠 옷이었습니다. 그의 음식은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간결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신앙, 회개, 침수로써의 침례, 그리고 자기보다 더 큰 권능을 지닌 자에 의한 성신의 은사였습니다.

그는 그를 좇는 제자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⁹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¹⁰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¹¹

그런 후 요한의 성역에 있어서 가장 절정에 달한 장면은 그리스도의 침례였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갈릴리에서 오셨습니다. 요한은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때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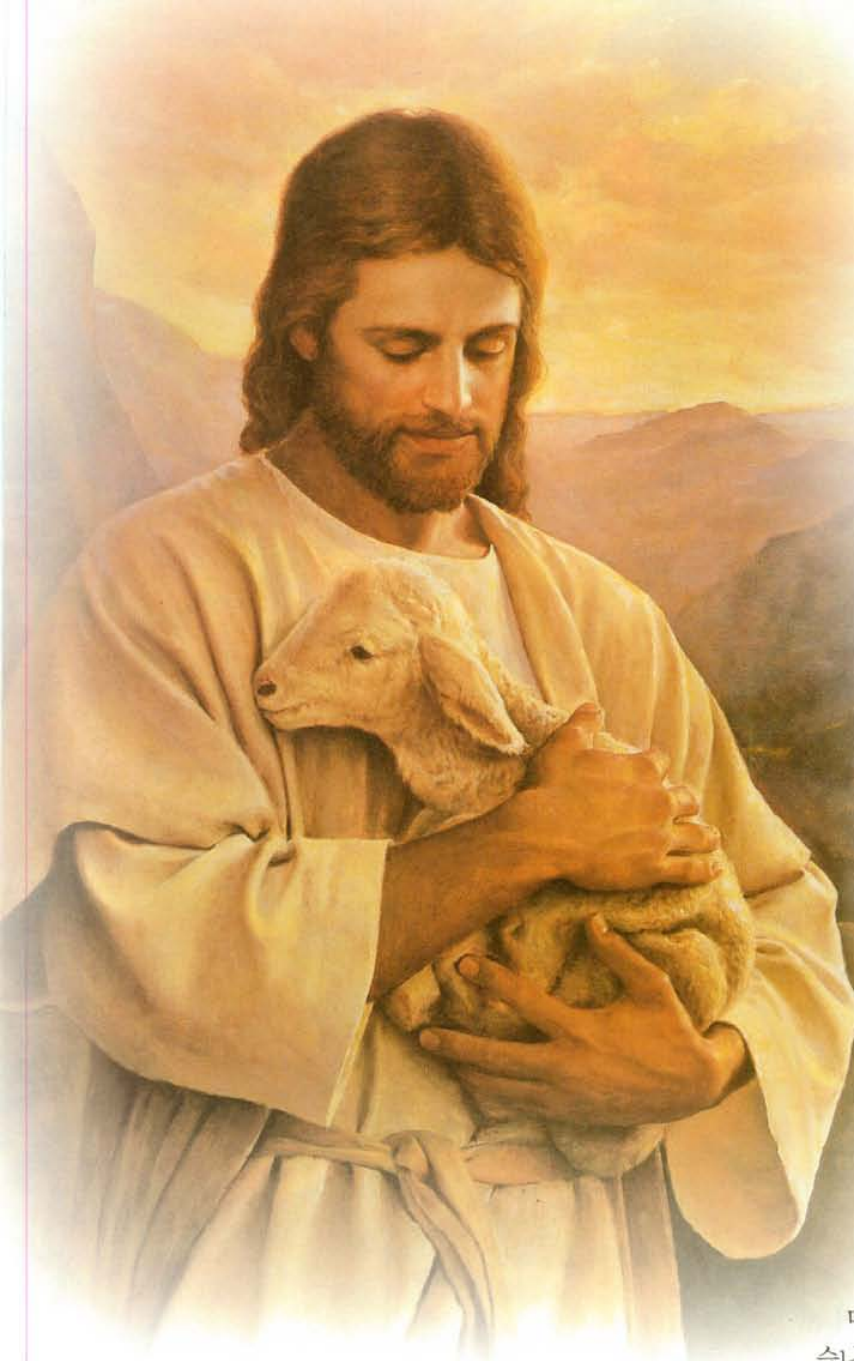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 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¹³

요한은 예수가 세상의 구속주시라는 간증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요한은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¹⁴

요한에 대하여 구세주께서는 후에 다음과 같이 증거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¹⁵

요한의 공적인 성역은 막바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위선과 속물적 근성을 질책했



교사들이 각 어린이들에게 신앙개조에 나오는 그 표준을 알고 그에 따르는 생활을 하기를 기대했을 때 그들은 참으로 놀라운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는 거룩한 명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길이 기억될 이 사건 덕분에 저는 이 말일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누리고 있는, 아론 신권을 소유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론 신권의 참된 의미를 작고하신 폴 시 차일드 스테이크장님께서 배웠습니다.

바야흐로 18세 생일을 맞이하게 되고 제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려 하고 있을 때 저는 멜기세덱 신권을 받으라는 추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차일드 스테이크장님께 전화를 걸어 약속을 하고 접견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경전을 사랑하고 이해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와 같이 경전을 사랑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그 분의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 분이 접견을 다소 꼼꼼하게 하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분과 전화 통화를 했을 때 우리의 대화 내용은 대강 다음과 같았습니다.

"차일드 스테이크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몬슨 형제입니다. 감독님이 제게 스테이크장님과 접견하라고 하셔서 전화드렸습니다."

습니다. 이제 그는 왕의 탐욕을 비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왕의 약점과 여인의 증오가 함께 작용하여 요한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시체가 안치되었던 무덤조차 그 육신을 붙들어 둘 수 없었습니다. 살인 행위조차 그의 음성을 잠잠케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1829년 5월 15일, 펜실베이니아 주 하모니에서 온 세상에 "요한이라 말씀하는" 한 천사, 즉 "신약 성서에 나타나는 침례 요한"이 부활한 몸으로서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나셨음을 선포합니다. "방문한 천사는 멜기세덱 신권이라 하는 더 높은 신권의 열쇠를 지닌 고대 예언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¹⁶ 이와 같이 하여 아론 신권이 지상에 회복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갈릴리에서 오셨습니다. 요한은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때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 좋습니다, 몬슨 형제님. 언제 방문할 수 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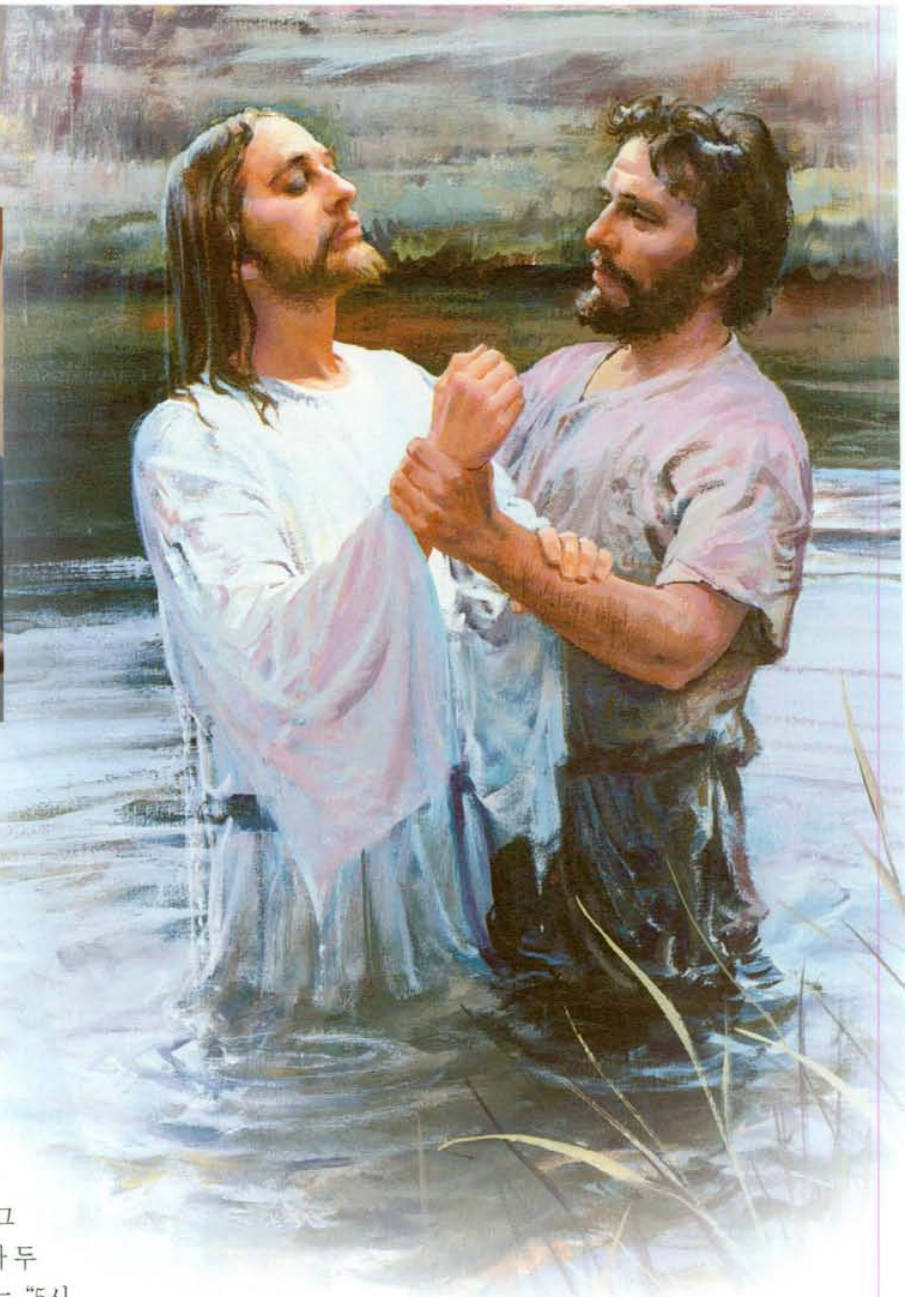
그 분이 참석하는 성찬식이 6시에 있었는데, 그 분과 이야기하는 도중에 저의 경전 지식이 탄로날까 두려워 되도록이면 시간을 줄이고 싶은 생각에서 저는 “5시에 가면 어떨까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몬슨 형제님, 그러면 경전 지식을 알아볼 충분한 시간이 없게 될 텐데요. 두 시에 오면 어떨까요? 올 때에는 형제님이 표시하고 참조하던 경전들을 가지고 오세요.”

마침내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인디애나 애비뉴에 있는 차일드 스테이크장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스테이크장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으며 곧 접견이 시작되었습니다. “몬슨 형제님, 형제님은 아론 신권을 소유하고 있지요. 천사가 형제님에게 성역을 베풀게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차일드 스테이크장님.” 하고 대답했습니다.

“형제님이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압니까?”라고 그 분이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모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분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몬슨 형제님, 교리와 성약 13편을 외워 보세요.”

저는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같은 일에 종사하는 종들이아, 나는 너희에게 메시아의 이름으로 아론 신권을 부여하노라. 이는 천사의 성역...”¹⁷

“그만.” 차일드 스테이크장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조용히 친절한 음성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몬슨 형제님, 아론 신권 소유자로서 천사의 성역을 베풀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요.” 그날 그 방 안에는 마치 천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살면서 결코 그 접견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그 엄숙한 순간에 임했던 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타임동행

십자가를 향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권을 존중합니다. 저는 그 권능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 힘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권능이 이룩한 기적에 놀랐습니다.

약 50년 전 저는 아론 신권의 권능을 소유했던 제사인 소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감독이었던 저는 그의 정원회 회장이었습니다. 로버트라는 이 소년은 말을 심하게 더듬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수줍어하며 자의식이 강한 데다가 자기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되는 언어 장애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주어진 임무 지명을 제대로 수행한 적이 한번도 없었으며, 다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항상 시선을 아래로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련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는 다른 사람을 침례하는 제사의 책임을 수행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거룩한 태버네클의 침례실에서 그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의식을 수행하기 위하여 흰 옷으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로버트에게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마루 바닥만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 채 더듬거리면서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가 그의 임무를 잘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윽고 서기가 말했습니다. “이제 낸시 앤 맥아더 자매가 제사 로버트 윌리엄즈 형제로부터 침례를 받게 됩니다.” 로버트는 제 옆에서 일어나 침례탕 안으로 들어가서는 어린 낸시의 손을 붙들고 부축해 주며, 인간의 생을 깨끗케 하고 영적으로 거듭나게 해주는 물 속으로 들어오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오른손을 직각으로 올리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문을 외었습니다. “낸시 앤 맥아더 자매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위임을 받아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그대를 침례하노라.”¹⁸ 단 한번도 말을 더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현대의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탈의실에서 제가 로버트에게 축하의 말을 했을 때 저는 조금 전과 같이 유창한 말을 들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밑을 내려다보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더듬거리며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로버트가 아론 신권의 권능으로 행할 때 능력과 확신과

하늘의 도움을 받아 말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것이 요한, 즉 침례 요한이라고도 불리는 사람이 전해 준 권능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은 겸손을 가르치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며, 신앙을 일깨워 줍니다.

그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사명으로 우리가 영감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의 생애에서 크게 깨달음을 받아 아론 신권과 그의 거룩한 권능을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

주

1. “난 하나님의 자녀”, 어린이 노래책, 2쪽.
2. 신앙개조 제1조.
3. 신앙개조 제13조.
4. 요한복음 21:15~16 참조.
5. 교리와 성약 107:14.
6. 누가복음 1:6.
7. 누가복음 1:13, 15.
8. 누가복음 1:80.
9. 요한복음 3:28.
10. 누가복음 3:16.
11. 마태복음 3:11.
12. 마태복음 3:13~15 참조.
13. 마태복음 3:16~17.
14. 요한복음 1:29.
15. 마태복음 11:11.
16. 교리와 성약 13편 서문.
17. 교리와 성약 13:1.
18. 교리와 성약 20:73 참조.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초등회 교사들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돕는다.
2. 복음의 가르침에는 아론 신권의 중요성과 침례 요한의 성역의 중요성이 포함된다.
3. 침례 요한의 성역은 우리에게 겸손과 용기와 신앙을 가르친다.

영국에서

복음의 뿌리를 찾아냄

예언자들이 이 땅을 거닐었다.
이제 이 청소년들이 그들의 발자취를 더듬는다.

재닛 토마스



어느 화창한 토요일 아침, 카디프 웨일스 스테이크의 청소년들은 아론

신권 회복을 기념하고 영국 제도에서 복음이 뿌리를 내린 과정을 살펴보는 특별 활동을 위해 큰 기대를 갖고 점심을 넣은 배낭을 메고 여행을 떠났다.

영국에서의 교회 역사는 꽤 오래 되었다. 그 역사는 지금 그들이 버스를 타고 여행하는 그 길을 윌포드 우드럽(1807~1898)과 브리감 영(1801~1877)이 거닐었던 16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이었던 영 장로와 우드럽 장로는 모두 교회의 대관장이 되었다.

버스가 웨일스에서 잉글랜드로 건너가는 동안 많은 십대들이 타고 있는 차 안은 몹시 시끄러웠다. 모두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청소년들은 할 수만 있으면 함께 모여 있는 것을 좋아한다. 그들은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쿰브란 와드의 15세 된 샬롯데 포워드스 친구인 블랙우드 와드의 캐드린 엘리엇과 뉴포트 그웬트 와드의 레이철과 함께

있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그들은 대개 스테이크 활동 시간에만 서로를 보게 되

로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은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다. 샬롯데는 이렇게 말한다. “웨일스는 살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에요. 모두 함께 모이는 것을 좋아하죠. 우리는 모두 한 스테이크 안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7대째가 됩니다. 조상 중에 일부는 유타로 이민을 갔지만 이곳에 남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곳에서 어디를 가나 친척이 있는 것 같아요.”

버스는 레드베리 마을로 들어갔다. 그 곳은 마을의 변화가에 있는 매력적이고도 오래된 옥외 시장을 제외하고는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시골 마을이다. 스테이크 청남 회장인 앤드루 디어든은 청소년들에게 이 지역에 왔던 최초의 선교사들은 시장의 광장에서 복음을 외쳤다고 말한다. 수 년 내에 선교사로 봉사하게 될 몇 명의 청남이 버스에서 내려 시장의 낡은 지붕 밑을 걷는다. 그들도 그 자리에 서서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에 관해 말할 용기를 갖게 될까? 군중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대영 제국에서의 최초의 선교사들이 레드베리 마을에서 전파했다.(위의 가운데 삽입 사진) 말번 힐스(배경 및 제일 왼쪽)에서 월포드 우드럽은 그 지역을 복음을 가르치기 위한 지역으로 헌납했다.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160년 전 윌포드 우드럽이 전하는 단 한 차례의 설교를 들은 몇 사람이 침례를 받았다고 했다. 청소년들은 그 선교사들이 그토록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에 놀랐다. 선교사로 나갈 날을 기다리는 18세 된 클리브 윌킨슨은 그 오래 전에 이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의 가르침을 듣고 믿었던 것을 놀랍게 생각했다.

“사람들이 말씀을 단 한 번만 듣고도 개종하려 했더니 참으로 놀랍군요.” 하고 클리브가 말한다. “저는 스테이크 선교사입니다만 선교사들과 밖에 나가도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집안에 들어갈 수만 있으면 행운이죠. 오래 전 선교사들이 아무도 들어 본 적이 없는 이 새로운 종교를 갖고 이 곳으로 올 수 있었던 것과 사람들이 그것을 믿을 만한 충분한 신앙을 갖고 것처럼 즉시 개

종할 수 있었던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다음의 두 장소는 서로 다르지만 모두 교회사에 자주 언급된다. 첫번째 장소는 맥번 힐스다. 이 곳은 윌포드 우드럽이 이 지역을 복음 전파 지역으로 헌납한 곳이다. 점심을 먹고 청소년들은 거리와 집들을 뒤로 하고 잔디로 덮인 언덕까지 걷는다. 그 곳에서 그들은 한 방향을 바라보고 그들의 발 아래 펼쳐지는 잉글랜드 히어포드셔어 군을 볼 수 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고향 쪽으로 고개를 돌려 웨일스를 바라볼 수 있다.

두 번째 장소는 존 벤보우 농장이다. 물론 농장 자체는 현재 개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수백 명의 개종자가 침례를 받은 조그만 연못은 교회에서 구입하여 관리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새로 깎은 잔디에서 휴식을 취하며 윌포드 우드럽이 이 곳에서 선교

맥번 힐스



맥번 힐스는 잉글랜드 남서쪽에 있는 높은 산등성이로서 위에는 잔디가 덮여 있고 사방 약 50킬로미터 정도를 볼 수 있는 전망이 좋은 곳이다. 가장 높은 지점이 히어포드셔어 비콘이다.

윌포드 우드럽은 맥번 힐스에 올라갔던 일에 대해 1840년 3월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9일, 콜드웰을 향해 걸으면서 나는 자연과 창조주의 권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이 일은 해발 360내지 460미터 정도 솟아 있는 맥번 힐스의 정상에서 있는 동안에 일어났다.

내 시야에 들어오는 주변의 농촌은 멀리까지 펼쳐져 있었다. ... 잘 알려진 이 언덕에서 장엄하고 매력적인 경치를 바라보는 동안 천둥이 울기 시작하고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계곡으로 번개가 치더니 비가 억수로 쏟아졌다. 구름 위로 솟아 있는 언덕에서 서서 바라보는 경치의 장관은 인상적이었으며 창조주의 아름다운 솜씨와 폭풍 가운데에서의 그의 위엄을 깊이

생각하게 하였다.”(Wilford Woodruff, 148~149쪽)

비콘 힐에서 브리감 영 장로와 윌포드 우드럽 장로, 그리고 윌라드 리차드 장로(1804~1854)와 모든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영 제국에서의 몰몬경과 찬송가의 출판을 승낙했다. 이 형제들은 성전에 갈 수 없었으므로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주님과 상의하기 위해 자주 맥번 힐스로 올라갔다. 이 언덕들, 특히 비콘 힐은 교회사에서 성스러운 곳으로 여기는 장소이다.



갯필드 엘름 예배당은
미국 외의 국가에서
교회가 가장 먼저
소유하게 된 건물이다.
이 예배당은 현재 교회의
중요 사적지로
복원되었다.



그림: 윌 리드우드, 잭필드 엘름 예배당

잭필드 엘름 예배당

잭필드 엘름 예배당은 1836년 협동 형제회(United Brethren)라고 불리웠던 기독교 단체에서 건립했다. 1840년 봄과 여름 사이에 교회로 개종한 협동 형제회가 교회에 기증한 그 예배당은 새로 침례 받은 대부분의 회원들이 나부로 이주할 때까지 널리 사용되었다. 예배당은 당시 이민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각되었다.

잭필드 엘름 예배당은 훼손되었지만 지역 회원들은 1995년에 그것을 매입하여 원래의 모습에 대한 설명에 따라 160년 전과 같은 모습으로 복원했다. 2000년 4월에, 초기 협동 형제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의 후손인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가 그 예배당을 재헌납했다. 그것은 이따금씩 교회 모임을 위해 사용될 것이며 교회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곳을 방문할 수 있다.

사업을 했을 인상적인 장면을 상상해 본다.

우드럽 장로는 그의 일지에서 주님께서 자신을 그 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같다고 적었다. 그는 먼 거리를 사룬 마차로 여행했으며 그보다 더 먼 거리를 직접 걸어야 했다. 그는 당시 전통적인 종파로부터 분리된 커다란 그룹에 속해 있던 부유한 농부인 존 벤보우와 그의 아내 제인을 만났다. 윌포드 우드럽은 이렇게 기록했다.

“존 벤보우는] 그날 저녁 그의 집에서 미국인 선교사가 설교를 할 것이라고 이웃에게 전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이웃이 모였으며 나는 그 집에서 처음으로 복음에 대해 설교했다. 나는 다음날 저녁에도 그 집에서 설교했으며, 존 벤보우 형제와 그의 부인, 그리고 그 지역에 있던 종교를 떠나 자체적으로 결성한 그룹에 속해 있던 네 명의 성직자 등 모두 여섯 명에게 침례를 주었다. ...

“... 벤보우 형제의 이웃에 서있는 지역 기성 교회에는 사제가 관리하던 낮 동안 열다섯 명이 참석한 반면 내가 낮과 저녁 내내 가졌던 모임에는 천여 명에 달하는 많은 청중이 모였다.” (Matthias F. Cowley, *Wilford Woodruff: History of His Life and Labors*[1964], 117~118쪽)

그 천여 청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으며 개종자들은 잉글랜드에서의 교회의 초기 지부들을 조직했다. 존과 제

윌포드 우드럽은 한 종교 집단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지역으로 인도되었다. 그는 존 벤보우 농장에 있는 연못에서 약 600명에게 침례를 주었다.(위의 가운데)



인 벤보우, 그리고 토마스 킹톤은 최초의 영국판 목민경과 말일성도 찬송가를 제작하는 비용을 부담했다.

1840년, 윌포드 우드럽은 수 개월 동안 복음을 가르쳤으며 지역 기성 종파에서 분리하여 결성한 그룹에 속해 있던 회원 가운데 한 사람을 제외한 전원에게 침례를 주었다. 그 수는 600명 가량 되었다. 또한 우드럽 장로는 다른 종파로부터 1200명이 넘는 사람에게 침례를 주었다. 침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수가 땅과 소유를 팔아 잉글랜드를 떠나서 나부로 집합했으며 그 곳에서 그들은 교회의 충실한 역군이 되었다. 그들은 후에 나부에서 쫓겨나 평원을 횡단했으며 미서부 지역에 새로운 사회를 건설했다. 오늘날 그들의 영향은 세계 전역에서 느낄 수 있고 그들의 많은 후손들이 주님의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벤보우 농장에 있는 연못 이외에는 별로 볼 것이 없지만 청소년들은 조용했다. 그 곳의 평화로운 분위기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스며든 것 같았다. 블랙우드 와드의 수지 테일러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보다 이전에 있던 사람들에게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참으로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지도자들이 그 곳에 관해 말하는 것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

마지막 장소는 갯필드 엘름 예배당의 유적지이다. 그들이 방문했을 때는 돌벽만 남아 있었다. 지붕은 없어졌고 안에는 썩기풀만 자라 있었다. 그 예배당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교회가 소유한 최초의 건물이었다. 160년 전, 사람들이 교회

에 가기 위해 구부러진 시골길을 걷는 모습은 가히 짐작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다.

윌포드 우드럽의 전도 당시에 그 곳에 있었을 권세와 영이 어떠한지 궁금할 뿐이다. 어느 날 저녁 사람들은 진리를 알게 되었으며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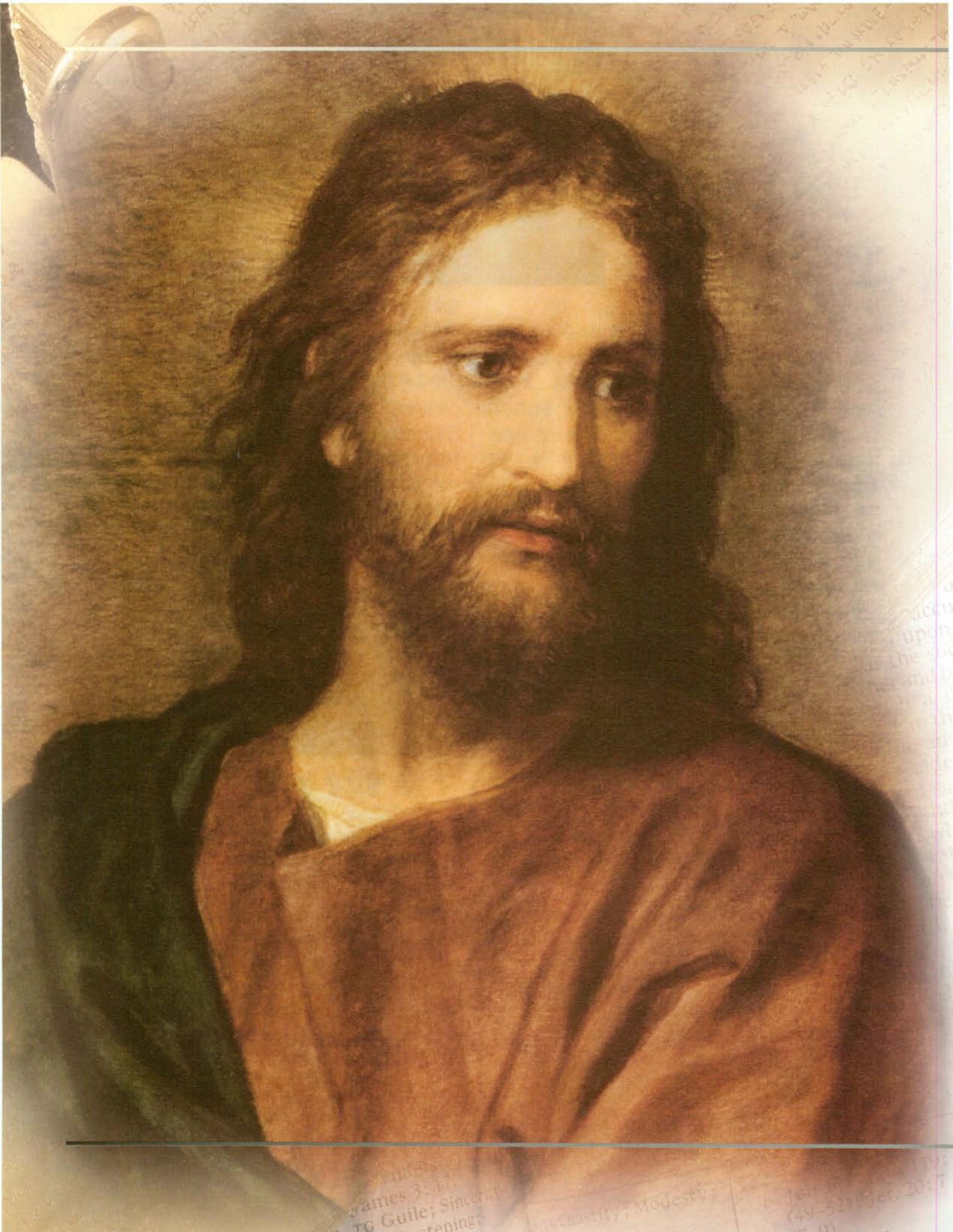
당시 뿌러진 씨앗은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를 찾는 청소년들에게서 아직도 꽃을 피우고 있다. 케어펠리 지부의 조셉 페리는 이렇게 말한다. “이러한 장소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교회 역사를 늘 미국에서 일어난 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영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



2000년 10월 10일, 윌포드 우드럽의 묘지

존 벤보우 농장에 있는 연못

존 벤보우 농장에 있는 이 작은 연못은 1840년에 수백 명이 침례를 받은 곳이다. 3월 5일에 윌포드 우드럽은 존과 제인 벤보우, 그리고 협동 형제회라고 하는 지역에 있던 기성 종교에서 떠난 네 명의 성직자에게 침례를 주었다. 우드럽 장로는 다음날의 대부분을 그가 기록한 대로 다음과 같이 보냈다. “나는 많은 사람이 침례 의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연못의 물을 퍼내고 침례를 베풀 준비를 했다. 그 후에 그 연못에서 600명에게 침례를 주었다.”(Wilford Woodruff, 117쪽)



James 3: 1,
TC Guile; Sincer;
stening;

Chastity; Modesty;

Jer 20: 7
(49-52) Jer 20: 7
7-0)

이는 그 책을 번역할 수단에 대해 간략히 말한 후 친구와의 예 언들을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말라기 3장을 인용한 후 4장을 인용했습니다. 교리와 성약 2편에는 이 방문에 대한 짧은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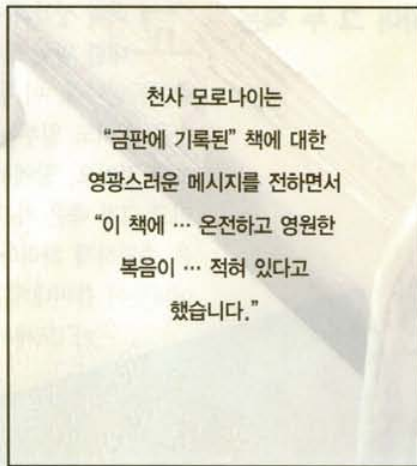
그런 다음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1828년 여름에 몰몬경 번역에 관하여 두 편의 추가적인 기사를 받았습니다. 3편과 10편은 마틴 해리스가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에게 보여”(교회 정사 1:21)주도로 위임 받은 116쪽의 원고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1829년 2월에 요셉 스미스 일세는 그의 아들을 방문하러 왔습니다. 그는 일어난 모든 일, 즉 어린 요셉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의 시현이 주어졌던 것과 주님이 “충만한 복음이 얼마 후에 알려져야 한다”(교회 정사 4:536)고 하신 약속과 천사 모로나이의 출현 및 금판을 받은 일과 번역 사업과 116쪽의 원고를 분실한 일, 그리고 금판과 우림과 둠뎀이 거두어졌다가 다시 돌려 받은 일들을 완전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언자 요셉은 부친을 위해 주님께 여쭙어 4편의 기사를 받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보라, 바야흐로 기이한 일이 인간의 자녀에게 나타나려 하는도다.” 몰몬경 번역은 이 위대하고 기이한 회복 사업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1829년 3월에 마틴 해리스는 116쪽의 원고를 분실한 일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후회하며 다시 펜실베이니아 주 하모니로 여행했습니다. 그는 요셉에게 자기를 위해 주님께 여쭙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예언자는 다시 한번 또 다른 계시 즉 5편을 받았는데 그것은 마틴 해리스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겸손해진다면 금판의 증인으로 부름 받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1829년 4월에 올리버 카우드리는 요셉이 그 금판을 받았다

는 것을 듣고 펜실베이니아 주 하모니로 여행해 가서 그 즉시 서기로 요셉을 도우며 번역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교회 정사, 1:32~33 참조) 그 달에 몰몬경을 번역하면서 생긴 의문에 대해 6편과 8편과 9편의 기사를 받았습니다.



13편은 몰몬경을 번역하면서 생긴 의문에 대한 응답으로 예언자에게 주어진 계시의 또 다른 놀라운 예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번역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다음달(1829년 5월)의 어느 날 금판을 번역하는 동안 번역 중에 나타난 죄 사유함을 위한 침례에 관하여 주께 기도하고 묻기 위하여 숲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한 사자가 빛의 구름에 싸여 내려와 동시에 그의 두 손을 각각 우리들의 머리에 얹고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우리들을 성임했습니다.

“나와 같은 일에 종사하는 종들이 나는 너희에게 메시아의 이름으로 아론의 신권을 부여하노라. 이는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죄사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를 베푸는 열쇠를 가지고 있느니라.”(요셉 스미스서 2:68~69; 교리와 성약 13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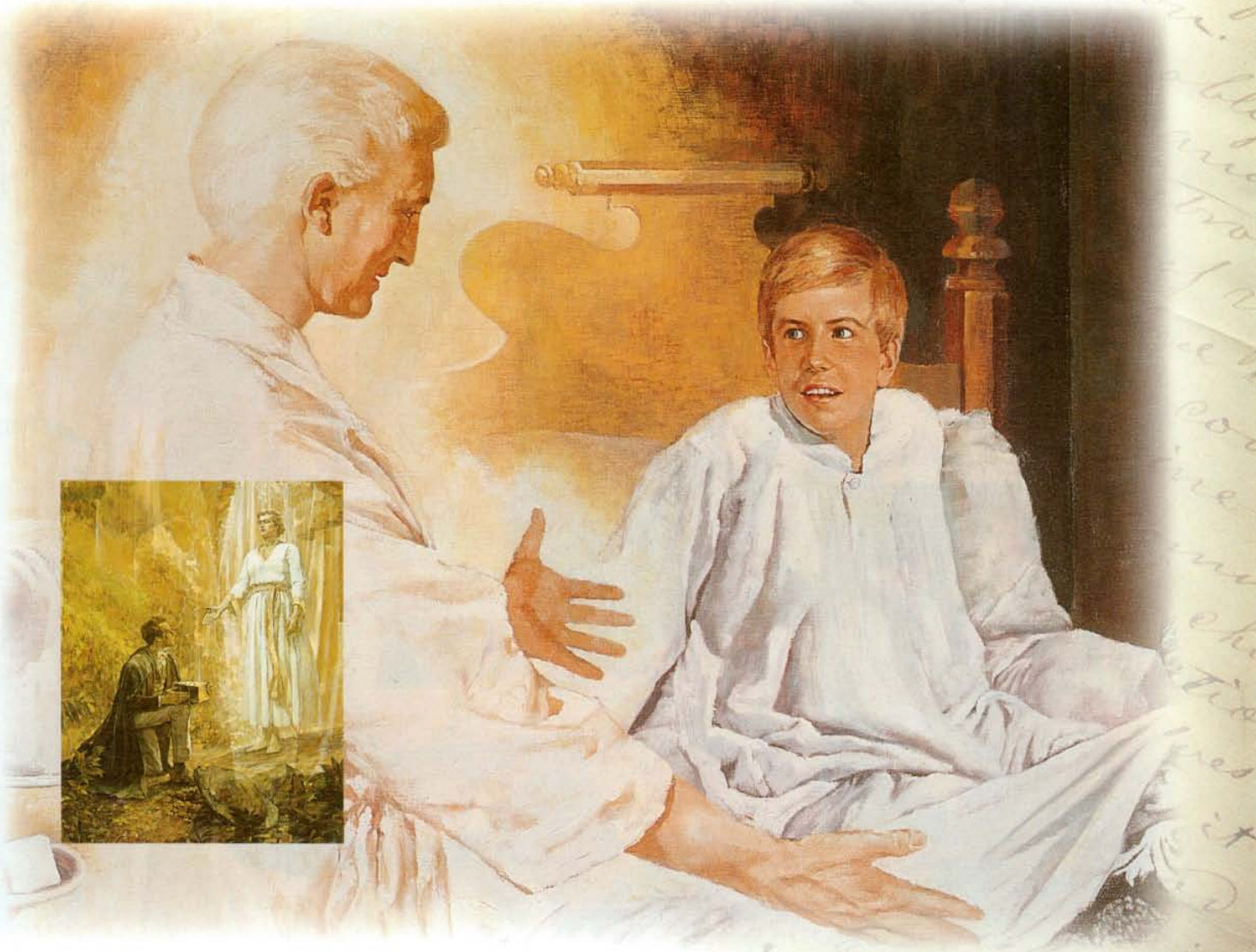
자신을 “신약 성서에서 침례 요한이라 불리우는 그 요한과 동일한 사람”이라고 밝힌 이 하늘의 사자는 요셉과 올리버에게 “자기는 멜기세덱 신권의 열쇠를 쥐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지시에 따라 일하는 자며 이 멜기세덱 신권도 때가 이르면 [그들에게 부여될 것](교회 정사, 1:40)이라고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몰몬경의 출현은 교리와 성약에 담긴 수많은 기사를 받게 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을 회복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했으며, 이 말일에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이 다시 세워지도록 준비시켜 주었

던 것입니다.

14편, 15편, 16편, 17편, 18편, 19편 및 20편은 모두 물
문경의 출현과 교리와 성약 사이의 관계를 보다 상세히 설명해
줍니다.

물문경의 중요성에 대한 가르침

물문경을 번역하여 출판하고 교회를 조직한 지 일년 반 정도
가 지났을 때 주님은 교리와 성약에 대한 “서문”을 1편에 기록
된 대로 계시하셨습니다. 이 계시된 서문에서 주님은 예언자 요



6a: Jer. 36: 5; Acts 16: 15
b: Jer. 18: 1; 1: 5; 16: 23
40; Alma 14: 22

그림: 데이빗 윌리엄슨, 요셉 스미스를 방문한 모로니에; 삽입 그림: 케네스 라일리, 금편을 받는 요셉 스미스

셍 스미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으로써” (교리와 성약 1:29) 물문경을 번역할 능력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셨습니다.

“이는 유대인의 간증으로 말미암아 구세주에 관하여 세상에 알려진 것과 같이 내 백성에게도 구세주에 관하여 알려질 것임이니 ...

3편에서 주님은 물문경을 내놓는 목적 중 몇 가지를 말씀하



“곧 저희 조상의 간증으로 말미암아 니파이인과 …
 “또 이 간증은 레이맨인 … 에게도 알려질 것이라 …
 “이상의 기록이 실려 있는 이 판은 바로 이 목적 때문에 보존
 되었나니, 주께서 그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게 하기 위
 함이었으며,

“레이맨이 자기 조상을 알고 또 주의 약
 속을 깨닫게 되며 복음을 믿어 예수 그리스
 도의 은덕에 힘입으며 그의 이름을 믿
 는 신앙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며 회개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나.”(교
 리와 성약 3:16~20)

5편에서 주님은 복음을 회복함에 있어
 몰몬경의 중요성에 관해 많이 말씀하셨습
 니다. 주님은 요셉에게 다음과 같이 상기
 시키셨습니다. “너는 금판을 번역할 은사
 를 받았나니, 내가 네게 처음 부여한 은사
 라. 이로써 내 목적이 성취되기까지는 이 이상의 다른 은사를 요
 구하지 말 것을 명하였노라.”(교리와 성약 5:4) 주님은 그분의
 종인 요셉 스미스에게 자신의 위대한 말일의 사업을 진행하기 전
 에 먼저 몰몬경이 번역되어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또한 5편의 5~16절에서 주님은 지상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
 는 데 있어 몰몬경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주님은 몰몬경을 ‘내 말’이라고 거듭 표현하셨는데 그
 것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이내 세상에 나왔습니다.(또
 한 니파이삼서 21:9~11 참조) 주님은 만일 인간의 자녀들이
 “몰몬경에 담긴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아니하면 … 너 나의 종
 요셉을 믿지 아니하리라.”(교리와 성약 5:7)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몇 구절의 성구는 예언자 요셉이 “몰몬경은 우리 종교의
 종석”(교회 정사, 4:461)이라고 선언했던 위대한 진리를 보여
 줍니다. 몰몬경의 신성함과 참됨에 대한 증거는 예수가 그리스
 도시며 요셉 스미스는 참된 예언자이고 예언자 요셉이 조직한 말

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참되다는 사실을 확증해줍니다. 그
 러한 영의 증거를 통해 세상 모든 나라의 용감한 사람들이 회복
 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5:16 참조)

교리와 성약 6편 9절에서 주님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의
 일이 성취되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하셨습
 니다. 올리버 카우드리는 참으로 “충만한
 복음”(교리와 성약 20:8~9; 27:5;
 42:12; 135:3 참조)이 담긴 몰몬경을
 세상에 내어 놓는 일에 도구가 되는 사람
 이었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자녀에게 기
 이한 일을 행하여 저희의 많은 죄를 깨달
 아 회개하게 하며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오게 하”(교리와 성약 18:44)려고 이
 기록을 손에 든 종들을 파송하려 하셨습
 니다.

교리와 성약 17편에는 몰몬경에 대해
 기록된 모든 간증 중에서 가장 명확하고 힘찬 것 하나가 나와 있
 습니다. 몰몬경이 그분의 “또 하나의 성약”인 주 예수 그리스도
 께서는 “나의 종 요셉 스미스 이세 … 는 그 책(몰몬경), 곧 내
 가 명한 부분 만을 번역하였으니, 너희 주와 하나님께서 살아 계
 신 것같이 그 번역은 참되도다.”(교리와 성약 17:5~6)라고 선
 포하셨습니다.

이 간증을 듣거나 읽고서 주님이 몰몬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궁금하게 여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거
 나 읽고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중대한 일로서 만일 우리가 몰
 몬경을 거절하거나 그리스도의 대의와 왕국에 충실하지 않는다
 면 우리는 그것들로 인해 충분히 비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
 다.(교리와 성약 5:15, 18 참조)

1829년 6월에 주님은 예언자의 서기인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몰몬경의 참됨과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힘찬 간증을 선포
 하셨습니다. “보라, 나는 네가 지금까지 기록한 것이 참됨을 나
 의 영으로써 여러 번 네게 나타내 보였으니 …

주님은 예언자의 서기인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그 [몰몬경에] 나의 교회의 기초,
 나의 복음, 나의 반석에 관한
 모든 것이 실려 있느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림: 몰몬경을 번역하는 요셉 스미스-성민 크림-헬 페슨-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

ca John
 b Jer. 30: 5;
 (15, 18); 2: 5; 10: 23
 40); Alma 14: 22

“내가 네게 계명을 주노니 기록된 것을 믿으라.
“그 기록에는 나의 교회의 기초, 나의 복음, 나의 반석에 관
한 모든 것이 실려 있느니라.

“그런고로 나의 복음의 기초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면
지옥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교리
와 성약 18:2~5) 그러므로 몰몬경에는
주님이 몸소 간증하신 대로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 있
습니다.

20편에는 몰몬경에 대한 넓은 범위의
토론이 담겨 있습니다. 몰몬경이 번역되고
출판된 후에야 교회를 공식적으로 조직하
라는 계시가 주어진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하나님
으로부터 정당하게 부름 받아 그분의 교
회를 조직하고 이끌도록 위임 받았음을 확
증한 후 주님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전부터 마련되어 있던 도구로 몰몬경을 번역할
수 있도록 높은 곳에서 능력을 저[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셨
나니

“몰몬경에는 타락한 어느 백성의 기사와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도 전해질 충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려 있느니라.

“이는 영감으로써 주신 것이요, 천사들의 성역으로 다른 사람
에게 확인된 것이니 저들로[세 목격자] 말미암아 세상에 선포되어,

“거룩한 경전이 참됨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감을 주시고
부르시사 옛 세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와 세대에 자신의 거
룩한 일을 하게 하심을 세상에 증명하시며,

“이로써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
을 나타내시느니라 ...

“그러므로 이같이 많은 증인[요셉 스미스, 세 목격자, 여덟 목
격자, 몰몬경을 편집한 사람까지]이 있어 저들이 세상을 심판하
리니, 이 후에 이 일[몰몬경]을 알게 될 자도 많으리라.

“이를 신앙으로 받아 들이며 의를 행하는 자는 영생의 관을
쓰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20:8~14)

주님은 84편에서 몰몬경에 관해 또 다른 중요한 말씀과 진지
한 경고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1832년에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
이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너희 마음은 불신앙으로 말미
암아 그리고 너희가 받은 것을 가볍게 다
루었으므로 어두웠느니라.

“허영과 불신앙은 온 교회로 하여금 정
죄 받게 하였나니

“이 저주는 시온의 자녀 곧 모든 자에
게 머물러 있느니라.

“저들은 회개하며 새 계명 곧 몰몬경과
내가 저들에게 이미 준 이전의 계명을 기
억하며 말로만 할 뿐 아니라 내가 기록한
것에 따라 행하기 전에는 이 저주 아래 머
물러 있으리라.”(교리와 성약 84:54~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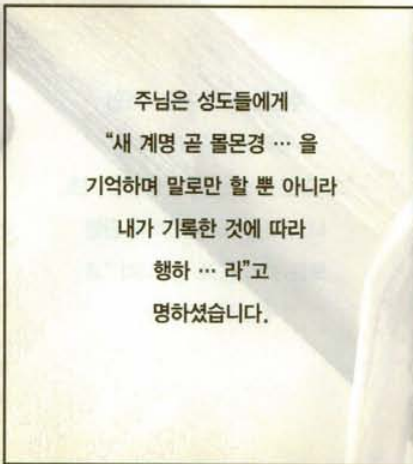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은 교회의 회원들에게 초기의 말일
성도들에게 가해졌던 박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몰몬경을 연구
하고 사용하며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도록 여러 번 촉구했습니
다.(A Witness and a Warning[1988], 6~8쪽 참조)

결론

참으로 주님은 교리와 성약 안에서 몰몬경에 대해 많이 말씀
하셨습니다. 이 두 권의 경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분의
위대한 말일의 사업에 대해 떼어놓을 수 없는 강력한 증거들입
니다. 벤슨 대관장은 이 두 권의 신성한 책들의 중요한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몰몬경에 대한 증인들 이외에 교리와 성약은 단연 몰몬경이
참되다는 것에 대해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가장 훌륭한 외
적인 증언이며 증거입니다. ...

“교리와 성약은 몰몬경과 예언자 요셉 스미스 및 그의 계승자



남자 10명
 여자 10명
 총 20명
 ...

들을 통해 계속되는 회복 사업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고리입니다. ...

“몰몬경은 인간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줍니다. 교리와 성약은 인간을 그리스도의 왕국 ... 으로 나아오게 합니다. ...

“몰몬경은 우리 종교의 '중석' 이며 교리와 성약은 계속되는 말일의 계시로 된 관석입니다. 주님께서는 중석과 관석 모두를 승인해 주셨습니다.”(“몰몬경과 교리와 성약, 성도의 빛, 1987년 7월호, 94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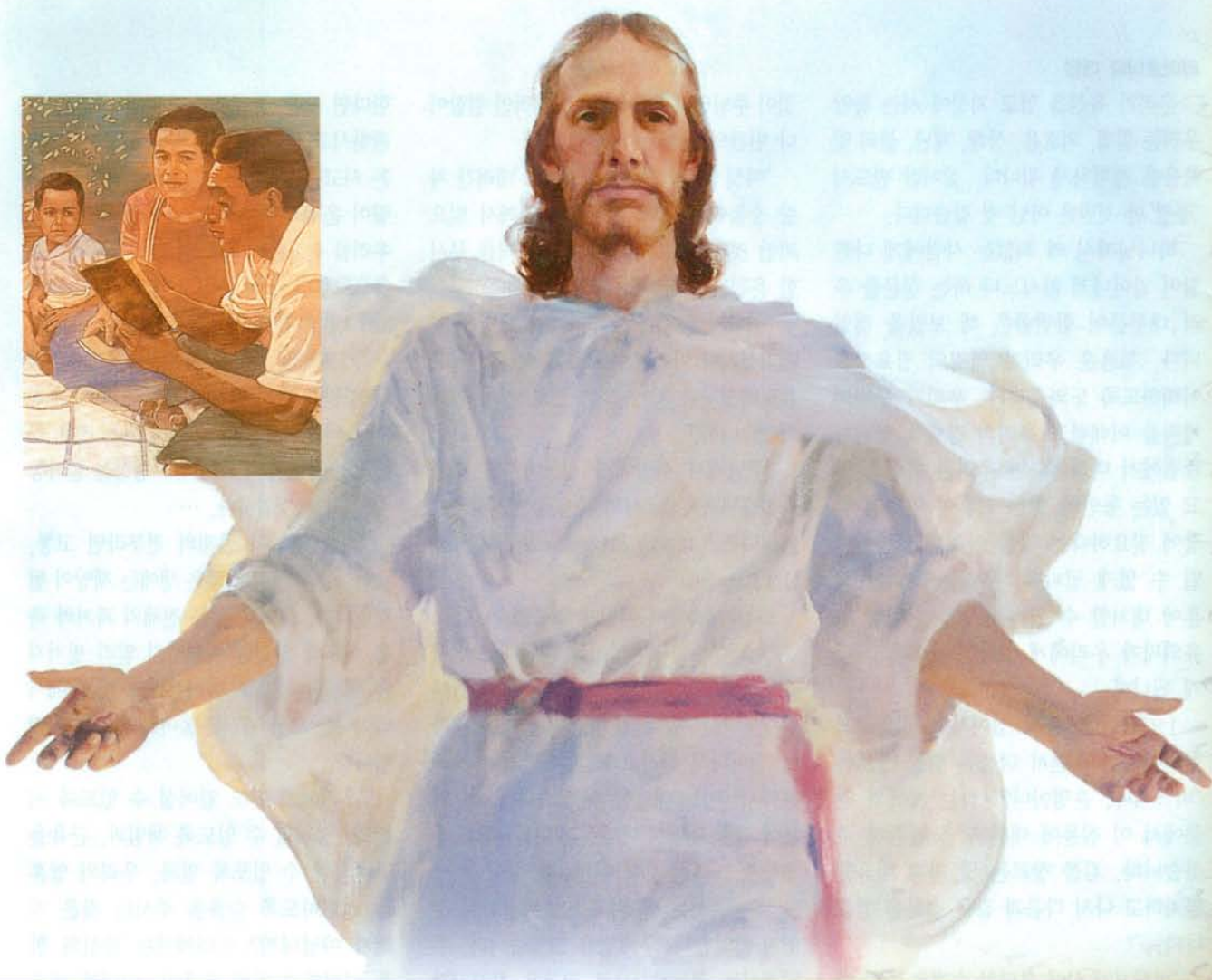


그림: 제림의 일부, 해리 헨더슨, 상인 그림, 채색(painting), 로버트 티 베퍼

Jer. 31: 13; 16: 23
 (15, 18):
 Alma 14: 22



사진 삽화: 제드 클라크

사랑이 충만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왜 죄없는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하시나요?

다음 대답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교회의 교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리아호나의 대답

우리가 육신을 입고 지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질병, 외로움, 상해, 재난, 불의 및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이란 반드시 "공평"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죄없는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하시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 대부분이 한번쯤은 해 보았을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역경의 필요성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고 우리의 경험을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얻는 교훈이 영적인 성장에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교훈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축복을 깨닫게 됩니다.

1955년에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이었던 스펜서 더블류 킴볼 장로는 "비극이나, 운명이나?" 하는 제목의 말씀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킴볼 장로는 몇 가지 비극을 열거하고 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비행기가 산에 부딪쳐 승객을 죽게 한

것이 주님입니까, 아니면 기계적인 결함이나 인간의 실수입니까?

"여섯 명을 영원한 세상으로 데려간 차량 충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일으킨 것입니까, 아니면 안전 규칙을 무시한 운전자의 실수입니까?"

"하나님께서 젊은 어머니의 생명을 앗아가셨거나 아이가 수로로 걸어들어 가게 유도하셨거나 차가 오는 길로 걸어 가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사람에게 심장마비를 겪게 하셨습니까? 선교사의 죽음은 시기상조가 아닙니까?" (*Faith Precedes the Miracle* [1972], 96)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대답해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떤 일을 얼마나 일어나게 하시고 또 얼마만큼이나 허용하시는지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떠한 것이든, 제가 분명하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극들을 예방하실 수 있지 않았습니까? 대답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전능하시므로 그분은 하시고자

한다면 모든 권세로써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고통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모든 사고를 예방하시고, 모든 비행기와 차량이 운행되게 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수고와 노고와 질병과 심지어는 죽음으로부터 구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기본적인 복음의 율법은 ... 자유의지와 영원한 발전입니다. 강요에 의해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의롭게 되는 것은 근본적인 율법을 무효화하고 성장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

"지상 생활이 존재의 전부라면 고통, 슬픔, 실패 그리고 짧은 생애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삶을 전세의 과거와 죽음 이후의 영원한 미래까지 멀리 펼쳐지는 영원한 것으로 바라본다면 이 생애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올바르게 이해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던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시련과, 성취할 수 있도록 책임과, 근육을 단련시킬 수 있도록 일과, 우리의 영혼을 시험하도록 슬픔을 주시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까? 우리에게서는 자신의 힘을 시험하기 위해 유혹이, 인내를 배우

기 위해 질병이, 불멸의 존재가 되고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 죽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병자가 고침을 받고 모든 의로운 사람들이 보호를 받으며 악인들이 멸망 당한다면 아버지의 모든 프로그램은 백지화될 것이며 복음과 ... 자유의지의 기본 원리는 끝나고 말 것입니다. 아무도 신앙으로 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기쁨과 평화와 보상이 즉시 주어진다면, 악은 없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하려는 의로움 때문에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힘을 시험할 필요도 없고 인격의 발전도 없을 것이며 능력의 성장도 없고 자유의지도 없으며 오직 사탄의 지배만 있을 뿐입니다.

“모든 기도가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과 제한된 이해에 따라 즉시 응답된다면 고통과 슬픔, 절망 심지어는 죽음도 없을 것이며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기쁨과 성공, 부활도 없을 것이며 영생도 하나님이 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Faith Precedes the Miracle, 96~97)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들을 막아 주시지 않는다고 비난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나쁜 감정을 품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문을 지나고 난 뒤에 영원한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가능성의 충만함에 도달할 수 있고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도록 도와주는 바로 그 경험을 하도록 허락해 주신 그분의 자비와 사랑과 지혜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독자의 대답

우리는 모두 고통을 겪습니다. 고통은 반드시 죄의 결과 만은 아닙니다. 고통은 때로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한 부분은 우리를 교육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장점과 약점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생이 준비하는 시간이요, 배우는 시간이요, 발전의 시간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주님을 믿고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부지런히 극복하며 하나님께 불평하는 일을 피하면서 충실하게 견디어 내는 일입니다.

루벤 시 델라 쿠아드라

필리핀 나르바칸 스테이크

나르바칸 와드

고난이나 시련을 하늘의 집으로 돌아가는 데 놓여 있는 징검다리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힘과 인도를 구함으로써 용기 있고 지혜롭게 그러한 시련에 맞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니게 될 것이며 이 세상에서나 앞으로 올 세상에서나 위로와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레이 첵 차이

타이완 핑퐁 지방부

핑퐁 지부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셨으므로 누군가가 무죄한 사람에게 해를 입히면 그 사람은 행한 바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해를 입은 사람도 적절한 때에, 비록 이 세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죄한 사람에게 자연 재해로 인



루벤 시 델라 쿠아드라



레이 첵 차이



이보넷 마세도 데 알메이다



프랭크 윌리엄 앤손디



넬파 아윙 구마랑



스텔라 아질롱

해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난다면 그 또한 신성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를 경고하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웃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보넷 마세도 데 알메이다
브라질 상파울루 스테이크
자르담 마리아 도 카르모 와드

말일성도는 구원의 계획의 목적과 목표를 알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고난과 박해와 시련이 우리를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오를 수 있게 해주는 사닥다리임을 압니다.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찬송가, 16장)라는 찬송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해 줍니다. 영원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실망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프랭크 윌리엄 앤손디
콩고 공화국 브라자빌 지방부
오우엔즈 지부

몇 년 전에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 저의 가족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행한 일이 이러한 불행을 당해야 할 만한 것이었는지 주님께 진지하게 기도하고 여쭙었습니다. 성신은 저에게 부친의 사망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더욱 강하게 해줄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역경이 우리를 강하게 하며, 역경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목적이 있는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넬파 아윙 구마랑
필리핀 일라간 선교부

투아오 지부

때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무죄한 사람들이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고 악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 무죄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을 허락하십니다.(엘마서 60:13참조) 그분은 그분 안에서 죽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니, 이는 죽음이 저들에게는 단 연고라.”(교리와 성약 42:46)고 약속하셨습니다.

스텔라 아질롱
우간다 캄팔라 지방부
콜롤로 지부

여러분이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보내 주신다면 질의 응답란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답을 2001년 4월 1일까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S AND ANSWERS 04/01, Liahona, Floor 24,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또는 다음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CUR-Liahona-IMAG@ldschurch.org. 여러분의 답은 여러분의 언어로 타자 치거나 깨끗하게 써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성명, 나이, 주소와 와드 및 스테이크(지부 및 지방부) 명칭을 꼭 적어 보내 주십시오. 사진은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몇 가지를 선택하여 신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학교에서 사람들이 부적절한 것에 관해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

본 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매리 앨런 스무트 자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또한 어둠과 불행으로 가득 찬 세상을 우리가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열매가 많이 있는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또 어디에서 봉사하는가에 관계없이 우리 개개인은 일어나서 주어지는 기회 하나하나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그분의 예언자들이 주시는 권고에 따라야 하며 또한 우리의 가정을 기도의 집과 보호와 안전의 집으로 만들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순종과 희생을 키움으로써 신앙을 깊게 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시온의 딸아 기뻐하라”,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114쪽)

때때로 세상을 극복하고 의롭게 산다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악한 날에 … 능히 대적”(에베소서 6:13)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

대관장단 제1보좌였던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1898~1982)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을 뜻하는 그러한 갑옷을 입은 사람들은 … 적대자를 대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한 지식과 신앙과 간증을 키울 수 있도록 경전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 우리는 거래할 때 정직하고 진실합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혜의 말씀을 지킵니까? 우리는 정직하게 십일조를 바칩니까? … 우리는 마음과 정신과 행위가 고결하고 깨끗하고 순수합니까?

“우리는 우리 주위에 널려 있는 악한 것들을 … 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념을 옹호할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참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웃과 사이 좋게 지내며, 남의 험담을 하거나 헐뜯고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지는 있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우리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합니까?

“우리가 이상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적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고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도의 빛, 1979년 10월호, 67, 70쪽)

매일 영적으로 새롭게 됨

유타 주 오렘 노스 스테이크, 팀파노고스 파크 제1와드의 루실 존슨 자매는 지금 80대인데 젊었을 때부터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자신의 영적인 “갑옷”을 입는 것을 배웠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남편과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저는 조용한 거실에서 무릎을 꿇으면 그날의 필요 사항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은 제게 큰 평화를 가져다 주었고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런 다음 저는 경전을 펴서 그 속에 들어 있는 영감과 인도를 취합니다. 매일 아침 무엇이든지 제가 해야 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혼자서나 어린 자녀들이나 침대 자녀나 또는 군인인 남편과 함께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면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경전을 공부하고 기도하기 위해 이른 아침의 조용한 시간을 취해야 한다고 믿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영이 새로워진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참으로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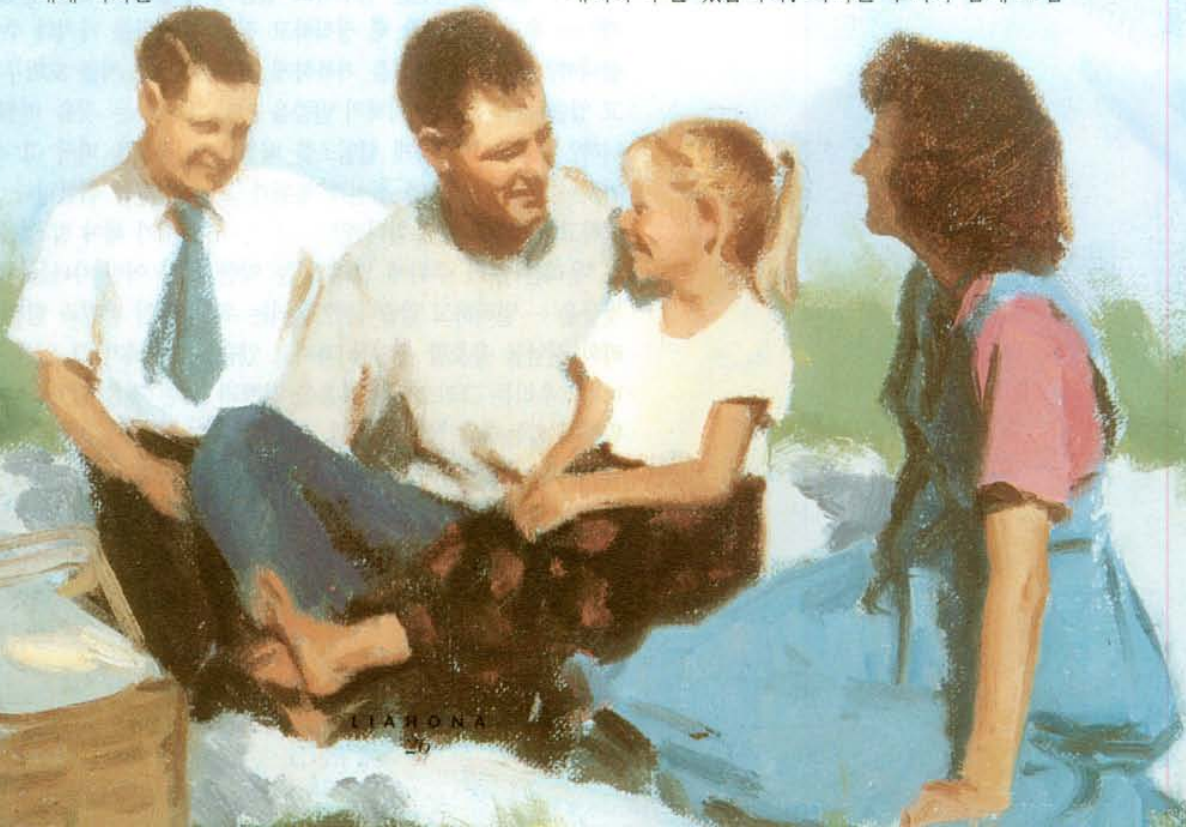
아빠와 복음을 나눔

쉴러 알 우다드

아빠는 미국 동부에서 자랐습니다. 엄마는 유타에 있는 말일성도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두 분은 캘리포니아에서 근무하는 동안 만났으며 여러 달 동안 데이트를 했습니다. 아빠가 다시 그의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갔을 때, 그는 엄마가 그리웠고 엄마를 데려가려고 왔습니다. 아빠는 말일성도와 결혼을 하겠다는 결정이 그의 남은 생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거의 깨닫지 못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모두 그들의 가족을 사랑했으므로 그들이 살 곳을 결정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빠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은 유타와 동부를 여러 번 오갔습니다. 우리가 동부에 살게 되면 아빠는 우리가 말일성도 지부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근처에 있는 마을로 우리를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아빠는 우리와 함께 모임





에 참석하는 것이 편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에서 기다렸습니
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모임이 끝난 후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
자리를 잡았고 아빠는 차에서 도시락을 꺼내 왔습니다. 우리가
점심을 먹는 동안 엄마는 오빠와 나에게 성찬식에서 배운 것을
아빠에게 말해 보도록 권하셨습니다.

우리가 엄마의 가족이 있는 곳 근처로 옮겨가 살게 되면 우리
는 더 자주 교회에 갔습니다. 더 이상 소풍은 가지 않았지만 식
탁에 둘러앉아 훌륭한 저녁 식사를 즐겼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우리는 교회에서 배운 것을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이가 들어서야 아빠가 우리와 함께 교회에 가시
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빠가 우리와 함께 교회에 가시려면 가르침을 받고 침례를 받
아야 할 거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아빠와 복음을
나누는 우리의 그칠 줄 모르는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몇 달이 몇 년으로 이어지면서 우리는 때로 과연 아빠가 침
례를 받게 될까 의아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아홉 살이 되었을 때, 우리 가정에는 또 다른 남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아빠는 식탁에서 초동회의 모든 공과를 다시 한
번 들어야 했습니다. 아빠는 가끔씩 우리와 함께 교회에 참석하
셨습니다. 아빠는 심지어 선교사들을 식사에 초대하여 토론을 들
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침례를 받겠다고 약속을 하지는 않으
셨습니다.

오빠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 남매들로 구성된 작
은 선교사 무리는 그나마 더 작아지는 듯했습니다. 오빠는 우리
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선교 지역에서도 아빠에
대한 노력은 계속 할 테니까.”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오빠가
집으로 보내는 거의 모든 편지는 선교 사업의 열의로 가득 차 있
었으며, 다음과 같은 질문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빠, 언제 침
례를 받으실 건가요?” 아빠는 선교사 토론을 거듭거듭 들었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스물 한 살이 되었을 때, 저는 우루과이로 선교사 부름을 받
았습니다. 저는 매주 집으로 편지를 썼으며 선교사로서 얻는 홀
륭한 경험들을 적어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오랫동안 거듭

해 온 침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언제
침례를 받으실 건가요?”

제가 만 스물두 살이 되던 날 저는 엄마로부터 생일 카드와
함께 메시지를 받았습니. “너희 아버지가 다시 선교사 토론을
하는구나. 이번에는 침례를 받겠다고 약속하셨단다.”

그때부터 집에서 편지가 올 때마다 저는 아빠의 침례 소식을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식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엄
마로부터 다음과 같은 짧은 메모를 받았습니. “너희 아버지가
이번에 침례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구나.” 저의 마음은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무엇이 잘못 되었을까? 내가 보낸 편지 가운데 아
빠를 주저하게 만든 글이 있나? 그 후 여러 달 동안 저는 아빠
를 위해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편지를 썼으며
아빠에게 계속 선교사를 만나도록 권유했습니.

육 개월 후 저는 “즉시 집으로 전화하십시오.”라는 메시지
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 동반자와 저는 놀라서 국제 전화가
가능한 사무실까지 쉬지 않고 뛰었습니다. 교환원이 저에게 그
녀가 전화를 연결하는 동안 전화 박스 안에서 기다리라고 했
습니.

전화벨이 울렸고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는 자못 흥분되고 행복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설
러, 너희 아버지가 오늘 침례를 받으셨단다. 아침에 일어나디
니 이렇게 말씀 하시더구나, ‘침례를 받고 싶소, 감독에게 전
화를 해서 오늘 침례를 받아도 되겠느냐고 물어 보구려.’ 그래
서 감독님께 전화를 걸었지. 그 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
비하셨단다.” 그날 정오에 와드 집회소에서 오빠가 침례식을 집
행했습니다.

엄마가 말하는 동안, 저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저의 마음은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 오랜 동안의 노력과 기다림
과 기도가 있는 뒤에 우리는 결국 완전한 회원 가족이 되었습
니다. □

설러 알 우다드는 아이다호 폴스 아이다호 센추럴 스테이크, 아이다호
폴스 제28와드의 회원이다.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

모든 젊은이는 선교사임

“교회의 모든 젊은이들은 영원한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선교사로 세상에 나가 가르치는 경험을 열망하고 소망하고 희망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디로 부름 받을지 모르지만 …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놀랍고 엄청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밀접하게 생활할 것입니다. 이전에 한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처럼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 있는 동안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될 위대한 미덕을 가르치고 행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선교사 경험을 위해 돈을 저축하고 준비하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꿈꾸고 기도하기를 강력히 권합니다.”¹

교회 안에서 결혼함

“우리는 교회 안에서 결혼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결혼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더욱 행복할 것입니다. … 우리는 같은 것을 믿을 것이며 교리나 그런 종류의 어떤 것에 대해서도 다투지 않을 것입니다.”²

교회에 대한 반대

“교회에 대한 반대는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 교회와 그 목적과 역사와 관행과 견해를 더 많이 알려 줌에 따라 그러한 반대는 사라져 갈 것이며 달라질 것입니다. 여전히 반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나부

밖으로 내몰거나 눈 속에서 미주리 주를 횡단하게 하거나 그런 종류의 일을 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종류의 것으로서 아마 어떤 경우에는 다루기가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될 것입니다.”³

영생의 약속

“주님은 크신 자비와 우리에게 대한 사랑으로 거룩한 신권의 권능을 통해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도 지속되고 죽음의 지배를 초월한 관계 가운데 함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위대한 통치자도 군사 지도자도 뛰어난 사업가나 훌륭한 교육자나 탁월한 전문가도 그런 종류의 약속을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서 최고의 영예를 얻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을 넘을 때 그들의 운명을 좌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⁴

성전에 가기에 합당함

“성전 추천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살아 가는 동안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기에 합당하지 않게 만들 어떤 종류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결코 결코 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성전 추천서의 모든 요건에 어긋나지 않는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은 복음대로 생활하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반드시 행할 수 있습니다.”⁵

주님을 인정함

“여러분이 자신의 능력에 지나친 찬사

와 칭찬을 보내지 않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나친 찬사는 독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분의 계획에 따라 현재의 위치에 여러분을 두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달성할 수 있는 어떤 선한 것에 대해서도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신뢰와 영광을 돌리며 자신에게 올 신뢰와 영광에 대해 염려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잘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과 그들에 대한 커다란 존경심으로 나아가며 여러분의 직책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⁶

자신을 믿음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시오. 훌륭하고 선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본질, 즉 여러분이 실제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이라는 신성한 본질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에게는 거룩한 어떤 것, 즉 고귀하고 훌륭하며 숭고한 어떤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오염과 더러움에서 일어나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변화를 가져 올 여러분의 능력을 믿으며 머리를 들고 더 높은 단계로 걸어가십시오.”⁷

주님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주님은 말일성도인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주님은 이 교회의 회원인

크리스티아 이담주

행복을 찾아

저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그분은 저에게 살아가는 방법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 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능력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태복음 22:37~39 참조)

“말일성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다른 사람들에 대해 빈정댐과 불친절함과 증오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신앙에 속한 것이 아니며 우리는 그들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대우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서 세상의 구세주요 구속주인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사랑을 키우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함으로써 가장 잘 표현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들 각자가 교회의 충실한 회원이 되고, 행하도록 요구 받는 것을 행하며, 일을 진척시키고, 봉사하도록 부름 받는 곳이 어디이든지 봉사하며 세상에 주님의 왕국을 세우기를 기대합니다.”⁸ □

주

1. 2000년 1월 30일, 싱가포르 모임.
2. 2000년 1월 2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모임.
3. 2000년 2월 25일, 데저렛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4. 1999년 7월 31일, 에콰도르 과야킬 모임.

5. 1999년 3월 21일, 비와이유(BYU) 예루살렘 센터 모임.


6. 2000년 2월 25일, 데저렛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7. 2000년 1월 22일, 하와이 오아후 지구 대회.

8. 2000년 1월 2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모임.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행함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이 사실에는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우리들 각자에게는 “거룩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고,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변화를 가져 올 우리의 능력을 믿으며 ... 더 높은 단계로 걸어갈 힘을 갖고 있다고 말씀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품고 계신 기대에 맞게 생활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을 압으로써 활력을 얻게 된다.(교리와 성약 82:10 참조)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



고 계실까? 힝클리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서 세상의 구세주요 구속주인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사랑을 키우기를 기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함으로써 가장 잘 표현될 것입니다.”(“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 리아호나, 2001년 2월호, 28~29쪽) 다음의 이야기

들은 우리가 자신의 생활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의 생활에 변화를 가져다주려 할 때 구세주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조용하고도 겸손하게 표현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물문경과 나의 개종

라메 오프레

수년 전에 나는 가나 쿠마시에 있는 한 서점에 갔다. 서가에서 서가로 옮겨가며 차례로 책을 꺼내 보다가 나는 밝은 청색 표지의 낡고 빛이 바랜 책 한 권을 발견했다. 제목이 물문경이었다. 나는 그것을 집어 들고 먼지를 털 다음 몇 줄을 읽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것을 성경과 연관지을 수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 책을 손에 잡았을 때 그것이 경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서가에서 뽑아 낸 다른 책들을 들고 있었기 때

문에 나는 그 책을 도로 꽂아 두었으며 계속하여 다른 책들을 구경했다.

잠시 후에 나는 다시 조금 전의 그 장소로 와 있는 것을 깨달았으며 또다시 그 책에 눈이 갔다. 이번에는 그 책의 목차를 살펴보면서 많은 이상하고 낯선 이름들을 보았다. 나는 이게 만일 경전이라면 왜 성경에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보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했다. 두 구절을 읽어 보았지만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다시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그 책을 서가에 도

로 꽂았다.

나는 차례로 책을 구경하다가 다시 세 번째로 물문경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다시 그 책을 펼칠 때는 모사이야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발견했다. 성경에 그런 이름이 나오나? 나는 궁금했다. 경전에 대한 나의 지식은 성경이 전부였다. 그 파란 책 때문에 나는 혼란스러웠다. 마치 마음속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서가에서 서가로 옮겨가며 차례로 책을 꺼내 보다가 나는 밝은 청색 표지의 낡고 빛이 바랜 책 한 권을 발견했다. 제목이 물문경이었다.



The Book of Mormon
The Book of Mormon

것 같았다. 전에 한 번도 그 책에 대해 들은 적이 없건만 그 책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잠시 후 나는 그 책을 샀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그 물문경을 읽지 않은 채로 책꽂이에 그냥 두었다. 몇 번인가 읽어 보려 했지만 쉽게 읽을 수가 없었다.

그 후 나는 가나에서 독일로 이사했다. 그 곳에 가서 나는 예배하러 갈 장소를 찾기 시작했다. 여러 교회에 가 보았지만 편한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다. 마침내 나는 예배할 장소를 알기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기 시작했다. 꼬박 한 달이 지났을 때 응답이 왔다.

내가 있는 아파트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 가끔씩 내 친구를 방문하는 부부가 있었다. 그들은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내 친구에게 함께 교회에 가자고 초청했으며, 친구는 내게도 함께 가자고 했다. 나는 "무슨 교회에 갈 거야?"라고 물었다.

그는 우리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갈 것이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친다면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그날이 되자 우리는 교회에 갔다. 나는 수많은 낯선 얼굴들이 있는 곳에서 주변을 살펴보았다. 내가 처음 받은 인상은 따뜻함과 소속감이었다. 또 나는 젊은이들이 성찬을 집행하는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았다. 그와 같은 것은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었다.

성찬식이 끝난 후 처음 온 방문자들은 복음 원리 반에 참석하라고 권유 받았다. 그날의 토론 주제는 가족의 영원성이었

다. 나는 내가 들은 모든 것에 대해 흥분했다. 그 반은 너무 빨리 끝났다. 내가 교사에게 다음주에도 같은 주제를 계속 다룰 것인지 묻자 그는 그렇다고 했다. 나는 다음 일요일에도 교회에 참석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시간은 신권회였다. 공과는 가족 재정을 관리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광장한 교회야!**라고 생각했다. **복음과 가정 관리가 하나로 일치하다니!**

신권회가 끝난 후 우리를 교회로 데려갔던 부부는 내가 관심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회복된 복음에 대한 토론을 하고 싶은지 물었다. 나는 "물론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그날의 모임의 영을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낡고 오래된 물문경을 샀던 그 가게가 떠올랐다. 당시에는 무의미하게 생각했고 잊은 지 오래된 그 가게에서의 사건이 이제 커다란 의미를 갖게 되었다.

복음 토론이 시작되자 그것은 멈춤 없이 계속되었다. 그 부부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배우는 것은 기쁨이었다. 그들은 나를 형제로서 뿐만 아니라 아들로 여겼다. 토론이 모두 끝나자 나는 침례를 받았다.

나는 별도의 사건이지만 연결된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 종종 깊이 생각해 본다. 왜 누군가가 가게로 들어가서 낯선 제목의 낡은 책을 보고는 이해할 수 없는 몇 구절을 읽고 나서 그 책을 샀을까? 그것이 이치에 맞는 일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이유가 실제로 주님께 있다고 믿는다. 주님은 우리의 행로를 준비시켜 주시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를 적절한 사람과 적절한 상황으로 이끌어 주신다. 흔히 우리가 하나

님을 찾기 훨씬 전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고 계신다.

과메 오파레는 독일 뮌헨 스테이크, 뮌헨 제4와드의 회원이다.

사랑과 외눈박이 괴물(Cyclops) 케이크

니키 오 벨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나서 몇 주 후 나는 일터에서 지치고 우울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다. 우리 아들들은 흥미 있는 두 가지 소식을 갖고 문에서 나를 맞이했다. 우리 집에는 물이 안 나오고 있었는데(한밤중에 끊어졌다.) 약 두 시간 후에 보이스카우트 유년대의 부자 케이크 대회 및 판매 모임이 있으므로 그들에게는 케이크가 필요했다.

부엌으로 걸어 들어갔을 때 나는 씻어야 할 접시가 놀랄 정도로 더 늘어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케이크 반죽을 만들 여분의 그릇은 거의 없었고 여전히 물은 나오지 않고 있었다!

나는 간단한 케이크 요리법을 찾아내고는 내켜 하지 않는 만이에게 동생들을 지휘하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그런 후 나는 옷을 바꿔 입고 창고를 샅샅이 뒤져 파이프 렌치를 찾아서 무물 속으로 기어 내려갔다. 남편이 펌프를 고치는 것을 여러 번 지켜보았기 때문에 나는 몇 분이 내로 물이 나오도록 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연결 부위는 괜찮아 보였다. 나는 펌프를 고치려고 스위치 상자를 덜컥덜컥하고 렌치로 툭툭 쳐 보았다. 소용이 없었다.

나는 파이프를 발로 찼다. 역시 헛일이었다. 펌프에 마중물을 부으려고 마개를 풀기 위해 손으로 찼다. 그렇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다.

나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시도하면서 그 우물 안에서 한 시간이나 보냈음에 틀림없다. 나는 자포자기한 심정이 되었다. 멋지고 깨끗한 부엌에서 엄마 노릇을 해야 할 시간에 이 구멍 안에서 멍청한 펌프에 망치질을 하면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왜 우리 아이들은 아버지도 없이 살아야 하고 아버지도 없이 유년대의 케이크 판매 모임에 가야 하지? 이게 공평한 거야?

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나는 포기하고 느지막하게 모임에 갔다. 나는 활동실 뒤쪽의 의자에 앉았고 아이들은 그 서글프고 조그만 케이크를 앞에 있는 테이블에 두었다. 유년대 모자처럼 생긴 케이크들도 있었고 나무와 새로 장식된 케이크도 있었고 애국적인 깃발이 장식된 케이크들도 있었다. 그리고 우리 케이크도 있었다. 우리 아들들은 케이크를 외눈박이 괴물처럼 보이게 하려고 가운데에다 보라색과 파란색 프로스팅으로 커다란 눈동자 하나를 만들어 장식했다. 또 핏발이 선 것처럼 만들기 위해 꾸불꾸불한 붉은 선을 많이 그려 넣었다.

나는 낙심하여 우울한 기분으로 그 곳에 앉아 있었다. 좌절감과 자기 연민으로 눈물이 흘러나오는 바람에 더 이상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어서 그 곳을 슬며시 빠져 나가 화장실로 갔다.

모임에 참석했던 상호부조회의 한 자매가 내가 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나를 따라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그녀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쏟아 놓았다.

그녀는 나를 팔로 감싸고 안아 주었으며 그런 다음 믿을 수 있는 배관공 두 사람의 이름을 말해 주었다. 배관공이라고? 정말 굉장한 생각이었다. 그것은 내게 혁신적인 것이었다. 농장에서는 물이 안 나

올 때 남편에게 말하면 그가 잠시 동안 케이크 판매가 시작되었다. 우리 아들들은 무대 위에서 싱긋이 웃으며 그 기괴한 눈동자 케이크를 들고 서 있었다.



펌프를 만지작거리고 그러면 모든 것이 괜찮아진다. 나는 배관공을 부른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나는 남편이 일을 처리했던 방법과는 다르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쨌든 상황은 나아질 것이다.

저녁 늦게 케이크 판매가 시작되었다. 우리 아들들은 무대 위에서 싱긋이 웃으며 그 기괴한 눈동자 케이크를 들고 서 있었다. 결국 어떤 상냥한 작은 할머니가 케이크에 비해 꽤 많은 돈을 치르고 그것을 샀다. 그 할머니는 케이크를 가지러 무대 위로 올라왔을 때 그 케이크가 무슨 모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색깔이 정말로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우리 아들들은 고맙게도 웃기만 하고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 두 명의 훌륭한 여인들은 사랑에 대해 알고 있었다. 단순한 방법으로 그들은 각각 필요 사항을 보고 그것을 채워 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했다. 아마 그들은 그것이 조그만 일에 불과하다고 말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그 우연한 일을 기억이나 하고 있을지 의심스럽다. 그러나 내게는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니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 주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다. 그분은 그분이 사랑했던 사람들의 필요 사항에 민감하셨으며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서로에게 민감하고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고 고양시켜 주도록 가르치신다. 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날 나는 사랑을 실천하면 때때로 작은 것이 큰 차이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

을 배웠다.

니키 오 벨슨은 현재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다.

나는 위로를 느꼈다 — 하지만 왜?

엘런 엘 올슨

1980년에 나는 필리핀의 케부 선교부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었는데 오르목이라 불리는 도시로 전임되었다. 이 지역은 통상적으로 꾸준한 성장을 보여 주었지만 몇 달 동안 거의 침례가 없었다.

나는 10월 28일에 오르목에 도착해서 새로운 동반자인 알렉산더 장로와 만났다. 처음 몇 주는 아주 진전이 더뎠다. 우리는 토론 약속이 거의 없었고 소개도 거의 받지 못했다. 오랜 시간 동안 일하고 가르칠 사람을 찾기 위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로 성공하지 못했다. 나는 인도를 받기 위해 기도하고 주님이 우리가 가르칠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고 있다는 확신을 받았던 것을 기억한다.

11월 15일에 알렉산더 장로와 나는 오르목 강의 작은 섬에 있는 촌락인 바리오 이슬라 베르데에서 소책자를 돌리고 있었다. 그 곳에 가기 위해 우리는 징검다리로 약 23미터 넓이의 얇은 강을 건너가야 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 길을 쉽게 오갔다.

우리는 그 곳에서 푸트로닐로와 안드레아 이고니아 그리고 그들의 손자인 알란 수에도 순가히드를 만났다. 그들은 그들의

집에서 가정의 밤을 갖자는 우리의 권유를 받아들였다. 그날 저녁 아름다운 관계가 시작되었다. 몇 가지 게임을 한 후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소개하고 우리의 간증을 전했다.

다음 두 주 동안 우리는 계속 이 가족을 방문했다. 그들의 얼굴이 빛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흥분했다. 11월말에 그 세 명은 모두 다음달에 침례 받기로 약속했다.

나는 우리가 12월 2일에 이고니아의 집에서 가르쳤던 경험을 절대로 잊지 못할 것이다. 와드 선교 책임자인 로아 형제가 우리와 함께 이고니아의 집에서 열리는 이웃 사람들의 모임에 갔다. 30명 이상의 이웃 사람들이 이고니아의 초청을 받아들여 첫번째 토론을 들었다. 우리가 간증을 할 때 영이 너무나 강했으므로 나는 그 곳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감동했다고 믿는다.

우리는 각 사람이 경험한 그 따뜻하고 평화로운 느낌은 성신이 임재하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영에 이끌려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계속 교회에 대해 알아 보고 침례를 받도록 권유했다. 30명의 이웃 사람 모두가 그 권유를 받아들였다.

이고니아 형제와 자매 그리고 그들의 손자와 일곱 명의 다른 사람이 12월에 침례 받았다. 오르목에서의 선교 사업은 대부분 이 훌륭한 가족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다시 성공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얼마되지 않아 나는 다른 지역으로 전임되었다. 나는 오르목에서 불과 6주만 있었지만 그것은 내 생애에서 최고의 시간 중 하나이다. 나는 그렇게 가치 있는 이유로 그토록 열심히 일해 본 적이 없었

다. 그보다 더 주님께 가까이 있다고 느꼈던 적도 없었다. 6주 간 그 곳에서 봉사하는 동안 주님은 우리가 아홉 사람을 가르치고 침례 받게 해주셨으며, 30명의 다른 사람들이 침례를 준비하게 해주셨다.

11년 후인 1991년 11월에 나는 직장의 내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강렬한 평안과 사랑의 감정을 느꼈다. 나는 누군가가 죽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다. 나는 집에

이고니아 가족은 가정의 밤을 갖자는 우리의 권유를 받아들였다. 그날 저녁 아름다운 관계가 시작되었다.

있는 아내 수잔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무 일도 없는지 물어 보았다. 아내는 괜찮다고 나를 안심시켜 주었지만 나는 여전히 똑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날 저녁 나는 내가 썼던 일지 하나를 열어 보라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오르목에서의 경험을 기록했던 부분을 펼쳤다. 그것을 읽는데 영이 점점 더 강하게 느껴져서 내 눈에 눈물이 어렸다. 나는 그 곳에서 내가 만난,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훌륭한 사람들에 대해 생각했다. 이 강한 위로의 느낌은 오르목에서의 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한 달 후 나는 오르목을 덮친 엄청난 태풍에 대해 읽게 되었다. 그 홍수 속에

서 22명의 교회 회원이 목숨을 잃었다. 그 중에는 이고니아 형제 부부와 손자인 알란도 있었다. 또한 내가 오르목에서 봉사할 때 알았던 다른 사람들의 이름도 보았다. 다시금 보혜사의 그 친숙한 따뜻함과 평안이 내 마음 속에 임했으며 나는 왜 내가 일찌기 그 영향력을 느꼈는지 이해했다.

나는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가 지상에서 시작했던 사업을 계속할 것임을 알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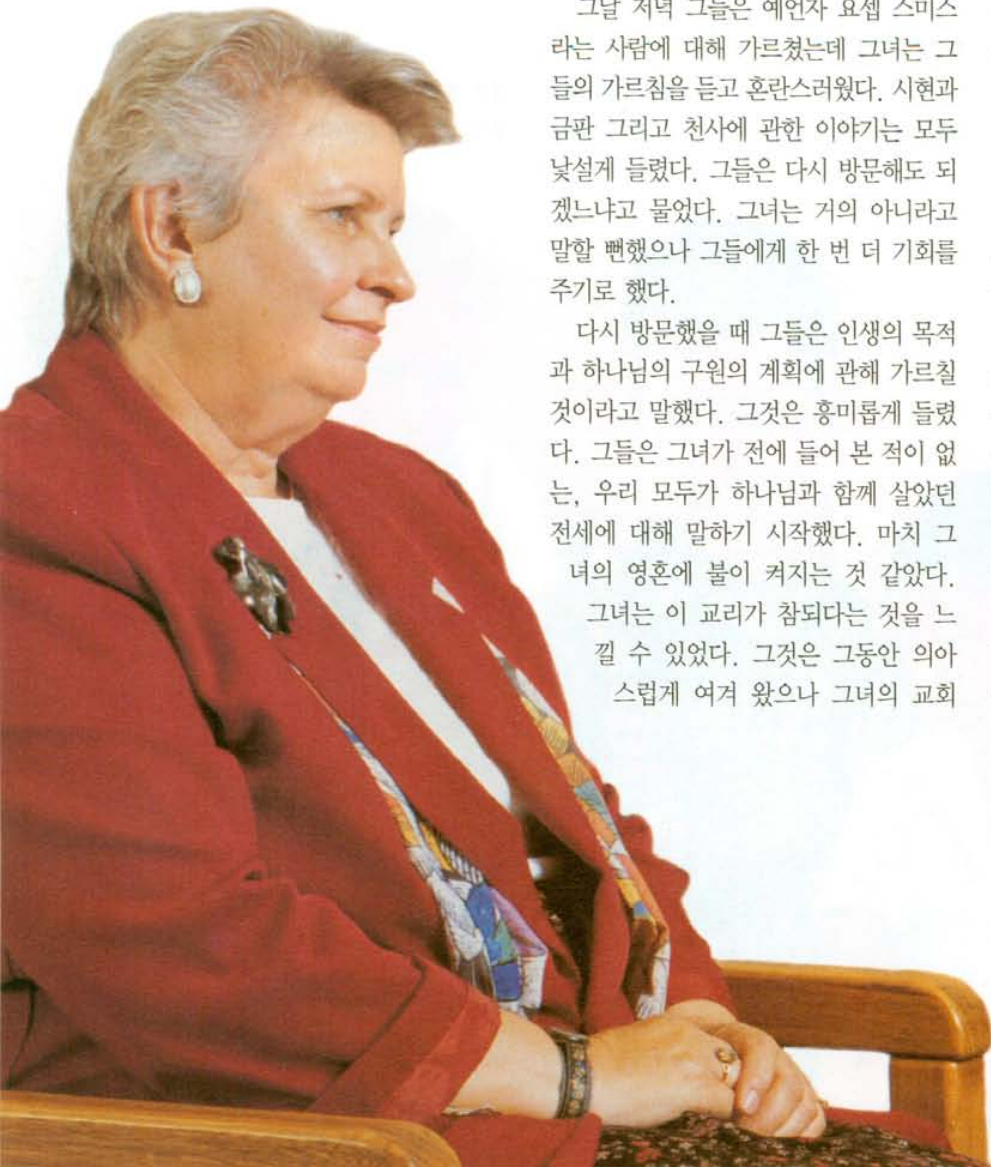
앨런 엘 올슨은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스테이크 센터빌 와드의 회원이다.



노미망인인 테레사 멩겔스는 독일 북부 지역에 있는 한 아파트에 홀로 살았다. 어느 날 저녁 문 두드리는 소리가

말씀에 말씀을

출생 이전



들려 나가 보니 두 명의 젊은이가 그곳에 서 있었다. 그녀는 몇 년 전에 그들의 동료가 주고 간 책이 아직도 있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들어오게 한 후 책을 찾으러 갔다. 그녀가 책을 되돌려 주려 하자 그들은 웃으며 그 책은 다른 교회에서 준 것이라고 하면서 책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자신들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왔다고 말한 뒤 그들은 그녀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 주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약간 외롭기도 했고 그들이 매우 친절한 사람들이었기에 이야기를 듣는 것에 동의했다.

그날 저녁 그들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라는 사람에 대해 가르쳤는데 그녀는 그들의 가르침을 듣고 혼란스러웠다. 시현과 금판 그리고 천사에 관한 이야기는 모두 낯설게 들렸다. 그들은 다시 방문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거의 아니라고 말할 뻔했으나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

다시 방문했을 때 그들은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관해 가르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흥미롭게 들렸다. 그들은 그녀가 전에 들어 본 적이 없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전세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마치 그녀의 영혼에 불이 켜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 교리가 참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그동안 의아스럽게 여겨 왔으나 그녀의 교회

에서는 결코 설명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때부터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모든 내용이 완전히 이해되기 시작했고 침례 권유를 받았을 때 그녀는 기꺼이 받아들였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전세의 교리에 관한 지식이 없이는 인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출생이 시작이라는 생각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인생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는 생각 또한 어리석은 생각이며, 그렇게 믿는다면 삶에 용감하게 맞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전세의 교리를 이해할 때 모든 것들이 들어맞고 이해됩니다.”(성도의 벗, 1984년 1월호, 25쪽)

전세에 대한 이해가 없이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고, 이 지상 생활의 목적을 완전히 파악할 수도 없다. 인생은 중요한 조각이 없는 퍼즐이 되고 우리가 받은 하늘의 유산은 불가사의하게 보이고 우리의 신성한 운명도 그렇게 느껴질 것이다. 팩커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고대 기독교인들은 이 전세의 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교리는 거의 500년 동안 가르쳐졌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배도의 시기를 지나는 동안 성직자들은 이 교리를 이단으로 간주하고 거부했습

니다. 일단 그들이 이 교리를 거부하자 그들은 삶의 신비를 결코 풀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목걸이를 만들기에 너무 짧은 줄에 진주를 꿰려는 사람과도 같았습니다.”(성도의 빛, 1984년 1월호, 23쪽)

우리가 출생 이전에 살고 있었으며 시험 받기 위해 이 지상에 왔다는 것을 이해할 때, 구세주의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불평등, 질병 및 육체적인 결함의 여러 문제들까지도 전세에서 존재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의문이 훨씬 감소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전세에 관해 구체적인 많은 것들을 계시해 주시지는 않았다. 예를 들면, 우리는 전세에서 무엇을 했으며, 어떤 구체적인 율법과 조건들이 있었는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천국 전쟁이 실제로 어떠한지에 관해 아는 바가 별로 없다. 그러나 계시된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지상에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 패커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전세에 대해 꼭 필요한 사실은 밝혀졌습니다. 비록 그것이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인생의 신비를 풀어 주었습니다.”(성도의 빛, 1984년 1월호, 24쪽)

이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 우리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따라서 그와 같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로마서 8:16~17; 교리와 성약 93:33~3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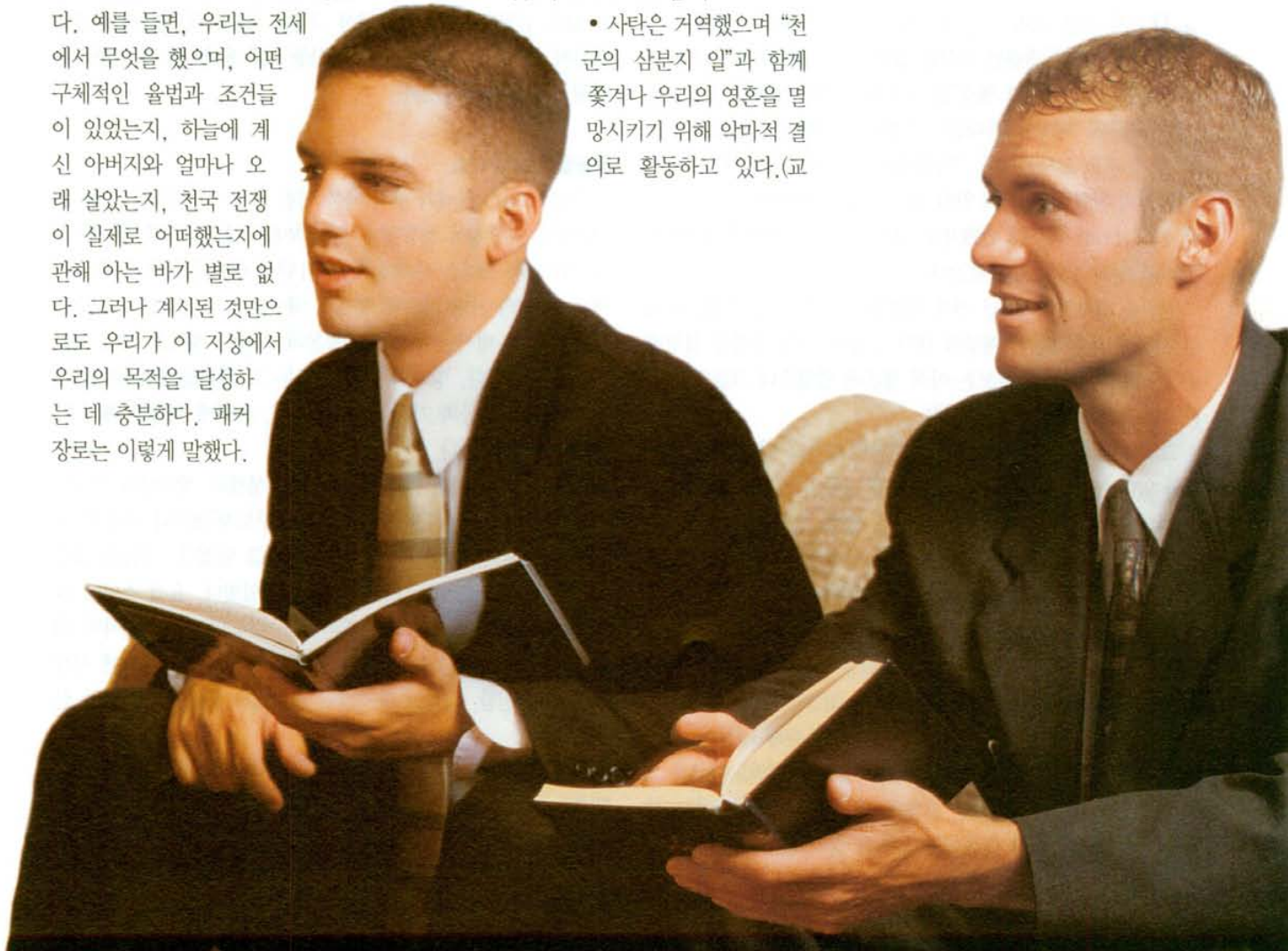
- 우리는 천국 회의를 참석했으며 제시된 아버지의 계획을 듣고 이 지상에 와서 우리의 구세주와 구속주가 되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했다.(아브라함서 3:24~28 참조)

- 사탄은 거역했으며 “천군의 삼분지 일”과 함께 쫓겨나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 악마적 결의로 활동하고 있다.(교

리와 성약 29:36~39 참조)

- 우리는 전세에 대한 기억이 없이 이 지상에 왔지만 우리가 극복해야 할 약점뿐 아니라 개인적인 능력과 재능을 갖고 이 지상에 왔다.(이터서12:27; 교리와 성약 104:17; 138:55~56; 아브라함서 3:23 참조)

- 지상 생활은 시작이나 끝도 아니지만 우리의 계속되는 발전 과정에서 시험의 기간이며 결정적인 단계가 되기도 한다. 이 시험 기간 동안 우리가 행하는 일이 영원한 미래를 결정짓는다.(아브라함서 3:25~26 참조) □



요셉 스미스 일세와 루시 맥 스미스는 그들의 아들 요셉 스미스 이세에게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을 처음 들은 사람들이었다. 그 후에 그들은
 복음을 위해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희생했다.

충실한 최초의 신자들

도널드 엘 앤더스
 삽화: 폴 만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1836년 1월 커틀랜드 성전에서 엔
 다우먼트와 관련된 의식을 집행하는 동안 해의 왕국에 관
 한 시현을 보았다. “그 영광”을 표현하기 위한 말들을 찾으면서
 그는 그 문의 “매우 아름다운” 모양을 “나선형으로 타오르는 불
 꽃”과 같다고 묘사했으며, “아름다운 거리”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의 찬란한 보좌”에 앉아 있는 모습을 설명했다.(교리와 성
 약 137:1~4) 너무나 기쁘게도 그는 그의 형 알빈과 “부모님”
 (교리와 성약 137:5)을 보았다.

알빈은 그로부터 13년 전에 죽었었다. 그의 고결한 삶, 요셉
 의 사명에 대한 지지, 계명에 대한 순종이 그의 승영을 설명해
 준다. 그러나 요셉의 부모는 아직 생존해 있었으니 그들의 승영
 은 어떻게 보여질 수 있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계속되는 주님의 다음과 같은 설명에 잘
 나와 있다. “이는 나 주가 모든 사람을 그들의 업적과 마음의 소
 망에 따라 심판하겠음이니라.”(교리와 성약 137:9)

회복된 복음에 대한 충실한 최초의 신자들인 요셉 스미스 일
 세와 루시 맥 스미스 — 오늘날 해의 영광을 추구하는 말일성도
 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들의 업적과 마음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
 요약하면, 그들은 진리를 찾으려 애썼고, 결국 진리를 찾았으며
 그 후에 진리를 고수했다.(마태복음 7:8 참조)

뉴잉글랜드에서 그들은 복음 진리를 찾기 위해 애썼다. 뉴욕
 에서 그들은 그것을 찾았다. 오하이오, 미주리, 일리노이에서 그
 들은 희생과 빈곤, 신체적인 고통과 세상의 조롱, 사랑하는 사
 람들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에도 움츠러 들지 않고 복음에 충실

한 삶을 살았다. 모든 상황에서 그들은 가족에게 복음의 원리를
 열심히 가르쳤으며 사심 없는 봉사를 했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끊임없이 간증했다.

복음을 찾으려 애쓰

요셉 스미스 일세와 루시 맥은 어린 시절 경건하고 근면한 뉴
 잉글랜드 가정에서 성장했다. 매사추세츠 탑스필드의 에이설 스
 미스와 메리 스미스 사이에서 1771년에 태어난 요셉 스미스 일
 세는 11명의 자녀 가운데 셋째로 태어났다. 1775년에 뉴햄프
 셔 길섬에서 태어난 루시는 솔로몬과 리디아 게이즈 맥의 여덟
 자녀의 막내였다. 양가의 부모는 모두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노동과 가족의 단합, 교양, 사회에 적합한 예의 바
 른 행동을 가르쳤다.

양가 모두 주변의 많은 사람들처럼 성경과 개인적인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자”였으나 주류가 되
 는 기독교는 성경에서 떠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끊임
 없이 그리스도 교회의 부흥을 고대하고 있었다. 요셉 스미스 일
 세의 부친인 에이설은 그의 후손 가운데서 말일의 예언자가 태
 어나리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 루시는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
 에 모친의 선함, 그리고 장기간의 질병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신

요셉 일세는 가족이 뉴욕 팔마이라로 이사할 때 루시와 자녀들보다 먼저
 떠났다. 그들이 재결합했을 때, 자녀들은 아버지를 둘러쌌으며 그의 얼굴은
 눈물과 입맞춤으로 뒤범벅이 되었다.



양을 나타내 보인 두 언니의 모범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젊은 여성으로서 루시는 자신을 하나님께 일치시키는 “마음의 변화”를 추구했다.

19세 때 루시는 버몬트 턴브리지로 사업차 여행을 떠나는 그의 오빠 스티븐을 따라가 그 곳에서 23세 된 요셉을 만났다. 일년 간의 교제는 사랑으로 바뀌었으며 그들은 1796년 1월 24일에 결혼했다. 그것은 장래가 기대되는 결합이었다. 그들은 건강했으며 주위에 친척과 친구들이 많았고 돈도 모아 두었다. 전통적인 뉴잉글랜드의 풍습에 따르면 그러한 번영과 사회적인 지지는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였다. 그러나 20년 동안 버몬트와 뉴햄프셔의 여러 마을 근처에 살면서 요셉과 루시는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1816년에 뉴욕 주 팔마이라로 이사했을 때, 그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을 받았다. 열 명의 자녀 가운데 두 명이 죽었다. 그들은 국가적인 경제 침체와 부정직한 동업자들로 인해 가난해졌다. 불순한 기상은 3년 연속으로 흉작을 가져 왔다. 루시는 두 명의 언니를 잇따간 결핵으로 인해 거의 죽음에 이르렀다. 유행성 발진티푸스는 요셉 스미스 일세와 루시의 모든 자녀에게 감염되었다. 어린 소프로니아는 부모가 그녀의 곁에서 “슬픔과 탄원”으로 무릎을 꿇고 마음을 쏟아 간구한 뒤에야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칠, 팔 세 정도의 어린 요셉은 골수염으로 고통을 겪었으며 합병증으로 다리를 절단할 뻔하기도 했다. 가족의 좋았던 평판도 그들의 운명과 더불어 나빠졌으며 그들은 그 고장에서 더 이상 짐이 되지 않도록 버몬트에서 떠나라는 요청까지 받았다.

그것은 또한 영적으로 강화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루시가 결핵으로 죽을 것이라고 내버려졌을 때, 그녀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비록 기도와 신앙으로 하늘에서 찾게 된다 하더라도 그분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종교를 찾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병 고침을 받았으며 그 후 이십 년 동안, 자신의 아들이 그 종교를 그녀에게 소개하리라는 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채 성실한 마음으로 그 종교를 찾으려 애썼다. “여러 날, 여러 달, 여러 해 동안” 그녀는 쉬지 않고 “하나님께 그분의 뜻의 숨겨진 보화를 알려 주시도록 간구했다.” 기성 종교에 대한 요셉 스미스 일세의 불신 때문에 그녀가 접하고 있는 교회 가운데서 그녀와 함께 참된 종교를 찾는 일에 동참하는 것을 허용치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 사이에서 분쟁의 원인이 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위안을 받기 위해 진지하게 기도했으며 그녀는 요셉 스미스 일세에게 진리가 전해질 때 그가 그것을 받아들여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꿈으로 위안을 받았다.

루시는 이렇게 기록했다. “우리는 건강과 번영을 누렸을 경우보다도 질병, 고통 그리고 어려움의 절망적인 시기를 통해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빛진 자를 용서해 주고, 빛을 갠았으며 더 나은 삶을 위해 서부 뉴욕으로 이주했다.

요셉 스미스 일세는 루시와 자녀들보다 먼저 팔마이라로 갔다. 가족이 재결합했을 때 그들에게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이사는 두 가지 특성을 나타내 보였다. 첫째는 재결합에 대한 큰 기쁨이었다. 루시는 “나 자신과 아이들이 자상한 남편과 아버지의 보호와 사랑을 다시 받게 되어” 기뻐했다고 기록했으며, 아이들이 “아버지를 둘러싸고 목에 매달리며 그의 얼굴은 아이들이 흘리는 눈물과 입맞춤으로 범벅이 되는 것을 보았다”고 적었다. 두 번째는 그들의 문제 해결을 함께 시도한다는 것이었다. 루시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모두 앉아 우리가 택해야 할 가장 좋은 방향과 사업을 추진해야 할 방법에 대해 깊이 상의했다.” 요셉 스미스 일세와 알빈 그리고 하이람은 땅 값을 지불하기 위해 일을 했다. 가정을 돌보고 식량을 채워 넣기 위해 루시는 소프로니아와 어린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 가사를 처리했으며, 루시가 만든 유포(oilcloth) 작품들을 팔았다. 그들은 또한 빵과 과자 그리고 룻비어를 만들었으며 어린 요셉은 집에서 만든 손수레를 끌고 마을에 나가 그것들을 팔았다.



스미스 가족은 함께 상의하는 가운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들의 단합된 결정은 각 가족이 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했다.

복음을 찾음

가족의 단합된 노력은 물질적인 상황을 크게 향상시켰다. “친구와 가정과 일자리도 없이, 나그네로” 팔마이라로 이사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우리는 우리의 땅 위에 손수 짓고, 보기 좋게 가구를 갖춘, 김소했지만 아늑하고 안락한 집에 정착할 수 있었다.”고 루시는 적었다.

영적인 진리에 대한 루시의 끊임없는 갈구는 결실을 맺을 때가 되었다. 1820년 봄에 그녀의 열 네 살 된 아들 요셉은 첫 번째 시현을 경험했으며 시현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을 보고, 그의 죄가 용서 받고, 아무 교회에도 속하지 말라는 명을 받고, 충만한 복음이 곧 회복되리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3년 후 모로나이라고 하는 하늘의 사자가 요셉에게 그가 “온전한 복음”(요셉 스미스서 2:34)이 담겨 있는 고대의 책을 출현시키도록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고 말해 주었다.

모로나이는 또한 요셉에게 그가 방문한 사실을 부친에게 말하라고 지시했으며 요셉은 그렇게 했다. 그의 부친은 그 사실을 완전히 믿었으며, 요셉은 그의 형제 자매들을 위시하여 가족으로

부터 완전한 지지를 받았다. 루시는 이렇게 기록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시켜 줄 어떤 것을 알려 주시려 한다는 확신을 가졌다. 우리는 너무나 기뻐다.”

그녀는, 하루의 일을 끝내고 온 가족이 난로가에 모여 앉아 요셉이 물몬경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들려줄 때 주의를 기울여 듣던 아름다운 추억을 기록하고 있다. “참으로 감미로운 단합과 행복이 우리의 집안에 충만했으며 어떤 불일치나 불화도 우리 가운데 있는 화평과 평온함을 방해할 수 없었다.” 루시와 요셉 일세는 세상은 오직 헛된 것만을 줄 뿐이지만 이 보화야말로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러한 지식은 감미로운 것이었지만, 1823년 9월 21일과 22일에 있었던 모로나이의 처음 방문과 1830년 4월 6일에 교회가 공식적으로 조직되던 날 사이의 7년은 요셉 스미스 일세와 루시에게 큰 시험의 기간이었다. 그들은 뉴욕 맨체스터에 있는 숲을 구입했으며, 나무를 베어 내고, 통나무 집과 창고와 부속 건물들을 짓고, 괴수를 삼고 뉴잉글랜드 풍의 큰 집을 짓기 시작했다. 1830년에 그 농장은 마을에서 훌륭한 농장 가운데 하나로 꼽혔으며 “깨끗하고 잘 정돈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로나이 천사의 방문이 있고 나서 겨우 6주가 지났을 때 알빈이 갑자기 죽는 비운을 맞이했다. 가족의 “행복은 순식간에 무

너졌으며” 요셉 스미스 일세, 루시 그리고 자녀들은 “한 동안 슬픔을 삼켜야 했다.” 이 슬픔에 뒤이어 그들은 농장의 소유권을 잃었다. 알빈은 그가 죽기 전에 “많은 노동과 고통과 피로”의 대가로 마지막 할부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불할 만큼의 충분한 돈을 벌었으며 새로운 집의 공사도 시작해 놓은 뒤였다. 땅 브로커가 죽자 오해가 생겨 났으며 그들이 고용한 목수가 사기로 권리증을 소유하게 되었다. 한 퀘이커 교도 신사가 와서 그들을 구해 주었다. 그가 땅을 구입하여 그들의 아들 사무엘이 일을 해 주는 대가로 앞으로 4년 간 그 집과 농장에서 살 수 있게 해주었다.

루시의 가장 비통한 추억 가운데 하나는 사랑하는 알빈이 부모가 노년에 편안히 살게 할 특별한 목적으로 설계한 집을 잃게 되리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탄에 잠겼던 일이었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나서 거의 의식을 잃은 채 의자에 쓰러지듯 앉았다.”고 기록했다. 그녀는 하이람에게 물었다. “이게 어찌된 일이니? 우리가 지난 10년 간 모든 것을 순식간에 빼앗기다니 어찌 된 일이야?” 그녀의 그러한 기분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지만 3년 후에 그 집에서 이사를 해야 했을 때 그녀는 그들 집에 하숙을 했던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수 년 동안 노동의 대가로 저의 행복을 위해 모았던 모든 것들을 돌이켜 봅니다. ... 이제 저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구원을 위해 포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 마디의 불평이나 눈물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 제가 남겨 놓고 떠나는 어떤 것에도 아쉬움을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들이 뒤에 남겨 놓은 것은 안락한 가정 이상의 것이었다. 요셉의 영적인 경험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에 대해 분노의 감정을 키워나가기 시작했다. 그들의 예전 이웃과 친구들은 대부분이 그들을 피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그들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이용하고 재산을 약탈하고 하찮은 일로 소송을 걸어 그들을 괴롭혔다.

하지만 명예스럽게도, 요셉과 루시는 전혀 적대감이나 원한을 품지 않았다. “우리는 요셉이 더욱 온전히 가르침을 받고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욱 더 부지런히 간구했다.”고 루시는 기록했다. 그들은 요셉 스미스 이세의 부름에 대해 알고 받아들인 최초의 사람들이었으며 몰몬경의 116쪽을 잃어버렸을 때 함께 슬퍼했고 금판을 지키는 일을 도왔으며 세 목격자의 간증을 듣고 초기에 침례를 받은 사람들 중의 일원이었다. 요셉 스미스 일세와 두 아들, 하이람과 사무엘은 여덟 목격자 가운데 들어 있었다.

가장 행복한 순간에 루시는 “내가 참으로 하늘의 하나님의 예언자, 그토록 위대한 일을 수행하는 존귀한 도구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거의 위압당할 정도였다.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순간은 그녀의 예언자 아들이 그의 부친 요셉 스미스 일세가 침례를 받은 즉시 그를 끌어안으며 이렇게 외쳤을 때였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제가 부친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에서 침례 받는 것을 보다니.”

복음에 따라 생활함

요셉과 루시가 종교적인 진리를 탐구한 것은 그들의 젊은 시절부터 34년간의 결혼 생활까지 계속되었다. 1840년에 요셉 일세가 죽기 전까지 10년간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마지막 날 그분 앞에 흠 없이 서리라는 확신을 갖고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길을 꾸준히 걸었다.(교리와 성약 4:2 참조)

요셉과 루시는 다시는 자신의 집을 소유하지 않았다. 커틀랜드에서 그들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요셉 이세를 위해 마련된 농장에서 살았다. 그들은 그 곳에서 숙식을 했으며 “피로에 지칠 때까지” 커틀랜드로 모여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했다. 미주리에서 예언자 요셉은 그들과 그의 결혼한 누이들이 파웨스트에서 여인숙을 운영하도록 했다. 나부에서는 마지막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요셉 일세와 함께 그들은 요셉 이세의 집 근처에 있는 작은 집에 살았다. 그러나 그들의 열



집을 잃게 되었을 때 처음에 루시는 낙담했지만 자신의 신앙으로 힘을 얻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저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포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남겨 놓고 떠나는 어떤 것에도 아쉬움을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악한 환경은 남의 짐을 나누어지고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고 한 침례 성약을 성취하는 일에 장애가 되지 못했다.(모사이아서 18:8~9 참조)

루시는 간호하는 일에 숙련되어 있었으며 요셉은 환자의 체력 유지에 도움을 주었다. 팔마이라의 한 이웃은 그들을 이렇게 칭찬했다. “병자가 있을 때는 이웃에서 가장 잘 도와주는 훌륭한 가족입니다. 저의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 한 사람은 거의 저의 집에 함께 있었습니다.” 파웨스트에서 루시는 “폭도들이 난동을 부리는 동안 … 이, 삼십 명의 환자를” 기꺼이 돌보았다. 나부에서 처음 정착했을 때, “수 십 명의 어린이들이 괴혈병으로 죽어 갔으며,” 예언자 요셉과 하이람은 “그들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환자를 돌보도록 성별하였다.” 그녀는 “여러 달 동안 가난하고 병든 성도들을 돌보면서 시간을 보냈다.” 한 젊은 이웃은 루시를 가리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항상 도와주는 가장 훌륭한 여성 중 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요셉과 루시는 그들이 소유한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다.

교회가 조직되기 이전에 그들은 한 명의 교아와 두 명의 노인을 그의 집에 받아들였었다. 커틀랜드에서는 한 신혼 부부가 여러 달 동안 그들과 함께 있었다. 커틀랜드, 미주리, 나부에서 그들은 자주 집에 있는 모든 침대를 손님들에게 내어 주고 담요 한 장으로 마루에서 자곤 했다. 그들은 새로운 손님과 선교사들을 먹이고, 교회 평의회와 모임을 갖게 했으며, 자신의 가정을 영적인 분위기에서 축복사의 축복을 줄 수 있는 안식처로 만들고, 개인적인 상담과 교리적인 토론을 나누고 매일 저녁 찬송과 기도로 가족 영적 모임을 가졌다.

복음의 진실함에 대한 그들의 간증은 회원들을 강화시켰으며 비평가들을 당혹케 했다. 팔마이라의 한 주민은 요셉 일세의 약속 어음을 입수한 뒤 즉시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물몬경을 태워 버리면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했다. 요셉은 몸이 아팠지만 여러 주일 동안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만 했다.

1830년에 장로로 성임된 요셉 일세는 곧 그의 부모와 형제 자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일부의 심한 반대와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형제들인 존, 에이설 이세, 실라스가 개종하여 성도들과 함께 집합했을 때 그의 기쁨은 컸었다. 65세 때, 그는 교회의 축복사로서 미동부 지역에 있는 회원들에게 축복사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떠났다. 임종 때까지 그는 수 백

명에게 권고와 영감의 축복사의 축복을 주었다. 그는 커틀랜드에서 교회의 최초의 고등 평의원으로 봉사했으며 1834년에는 하이람과 함께 교회의 대관장 보조로 성임되었다. 커틀랜드 성전 헌납식에서 이 연로한 주님의 종은 기이한 일들을 보았다.

루시도 그에 못지않게 용감했다. 루시가 전에 나가던 교회의 목사가 그녀에게 물몬경을 부인하라고 강요하자 그녀는 그를 무시했다. “당신이 나를 말뚝에 묶고 나뭇단을 둘러쌓아 불에 태워 죽인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는 한 그 ... 기록이 ... 참됨을 외칠 것입니다.”

한 번은 몇 명의 장로가 자신들이 말일성도라고 밝히는 것은 박해를 불러오는 일이라고 말하자 루시는 담대하게 말했다. “저는 사람들에게 제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할 것입니다.” 어떤 목사가 물몬경은 고려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비웃자 루시가 이렇게 간증했다. “목사님, 물몬경에는 영원한 복음이 수록되어 있으며 성신의 은사와 권세에 의해 목사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쓰여졌다는 것을 담대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셉과 하이람이 살해당하고 나서 7개월이 되었을 때, 루시는 그녀 자신과 죽은 남편을 위해 이렇게 외쳤다. “이 왕국이 널리 퍼지도록 돕고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요셉 일세와 루시 모두 당시 교회의 회원들이 받을 수 있었던 모든 성전 의식을 받았다. 요셉 일세는 커틀랜드 성전에서 예비 의식을, 루시는 1845년 12월 10일에 나부 성전에서 예비 의식과 엔다우먼트를 받았다.

루시와 요셉이 주는 교훈

이 충실한 신자들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 부모로서 그들은 자녀에게 복음에 순종하고 단합하여 열심히 일하며 인도와 원하는 축복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가르쳤다. 그들의 모범은 가르침과 일치했다.

둘째, 그들은 어느 곳에서 진리를 발견하던 그것을 가지 있게 여길 것을 모범으로 보였다. 그들은 부모로서 모든 대답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신 기꺼이 그들의 자녀 가운데 한 자녀에게서 배웠다.

셋째, 복음에 대한 헌신은 그들의 첫번째 우선 순위였다. 가난과 절망과 질병 그리고 조롱을 참고 견디어야 할 때에라도 그들은 복음에 대한 충성을 포기하지 않았다.

넷째, 그들은 재물이 거의 없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다른 성도와 사회를 위해 기꺼이 그 재물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 봉사했다.

다섯째, 그들은 가족이 함께 있도록 했다. 박해로 인해 쫓겨거나 집합을 할 때 요셉과 루시는 성도들을 따르면서 이미 결혼한 그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다녔으며 그들의 신앙을 키워 주고 이끌 때 돌보아 주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었다.

여섯째, 그들은 끝까지 견디었다. 그들을 실망시키고 신앙에 의문을 갖게 할 수도 있었을 시련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충실했다. 1840년에 요셉 일세는 그의 가족과 성도들에 둘러싸인 채 교회의 축복사로 운명했다. 1846년에 성도들이 나부를 떠날 때 칠십 세 된 루시는 생존해 있던 그녀의 네 자녀, 그리고 며느리 엠마와 함께 그 곳에 남았지만 요셉의 사명에 대한 루시의 신앙은 결코 시들지 않았다.

최초의 신자로서 그녀와 남편은 모범적인 부모로서, 또한 부부간의 헌신, 그리고 진리에 대한 헌신의 표준을 세웠다. 그들의 모범은 우리 시대의 모든 말일성도 가정이 가야 할 길을 밝게 비추어 준다. □

케이스빌 유타 남 스테이크의 케이스빌 제11와드 회원인 도널드 엘 엔터스는 가족 및 교회 역사부, 교회 역사 및 미술 박물관 및 유적지, 선임 관리자이다.

요셉과 루시는 그들이 소유한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다. 커틀랜드, 미주리, 나부에서 그들은 집에 있는 모든 침대를 손님들에게 내어 주고 담요 한 장으로 마루에서 자곤 했다.



모범의 힘

카를로스 페레스

그림: 팻 거버, 사진 촬영: 크레이그 다이몬드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저는 에콰도르의 육군에서 일 년간 복무하기로 했습니다. 짐을 챙기면서 저는 물론경과 찬송가를 넣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물론경이 제 생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랐습니다.

저는 104 청년 중대에 배속되었으며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나서 말일성도가 저 하나뿐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저는 좋은 모범을 보이고 싶었으며, 그래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경전을 읽을 시간을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점심을 준비하는 데 15분의 시간이 주어졌으며 저녁에 30분의 자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물론경을 읽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그들은 곧 제가 교회 회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저를 놀렸지만 그들의 말이 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매일 물론경에서 읽은 내용을 적용하려 했습니다.

하루는 물론경을 읽다가 니파이삼서 12장 16절을 읽고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백성들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저의 중대원과 장교들로부터 신임을 얻었습니다.

저의 군복무는 대체로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의 친구가 자동 소총의 탄창을 잃어버렸습니다. 저의 나라에서 그러한 물건을 훔치는 일은 정부에 대한 중죄로 영창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 전 중대원은 삼 일 동안이나 잃어버린 부품을 찾아 보았습니다. 그 삼 일은 그것을 찾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것을 훔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소형 트렁크를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복음 교회의 신자인 중대장은 모든 소형 트렁크를 수색하도록 했습니다. 저의 트렁크를 검색할 때 중대원이 모두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탄창이 저의 트렁크에서 발견되었을 때 저는 놀라지 않

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거기에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으며 저는 중대장이 저를 영창으로 보내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둘러서서 지켜보고 있던 중대원들은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 했습니다. 중대장이 무슨 말을 할까 하고 기다리는 동안 내무반은 조용했습니다.

그는 저를 부르더니 낮은 소리로 설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모릅니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의 행동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네. 그리고 자네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네.” 그러자 다른 장교가 중대장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 병사가 그랬다고 믿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장교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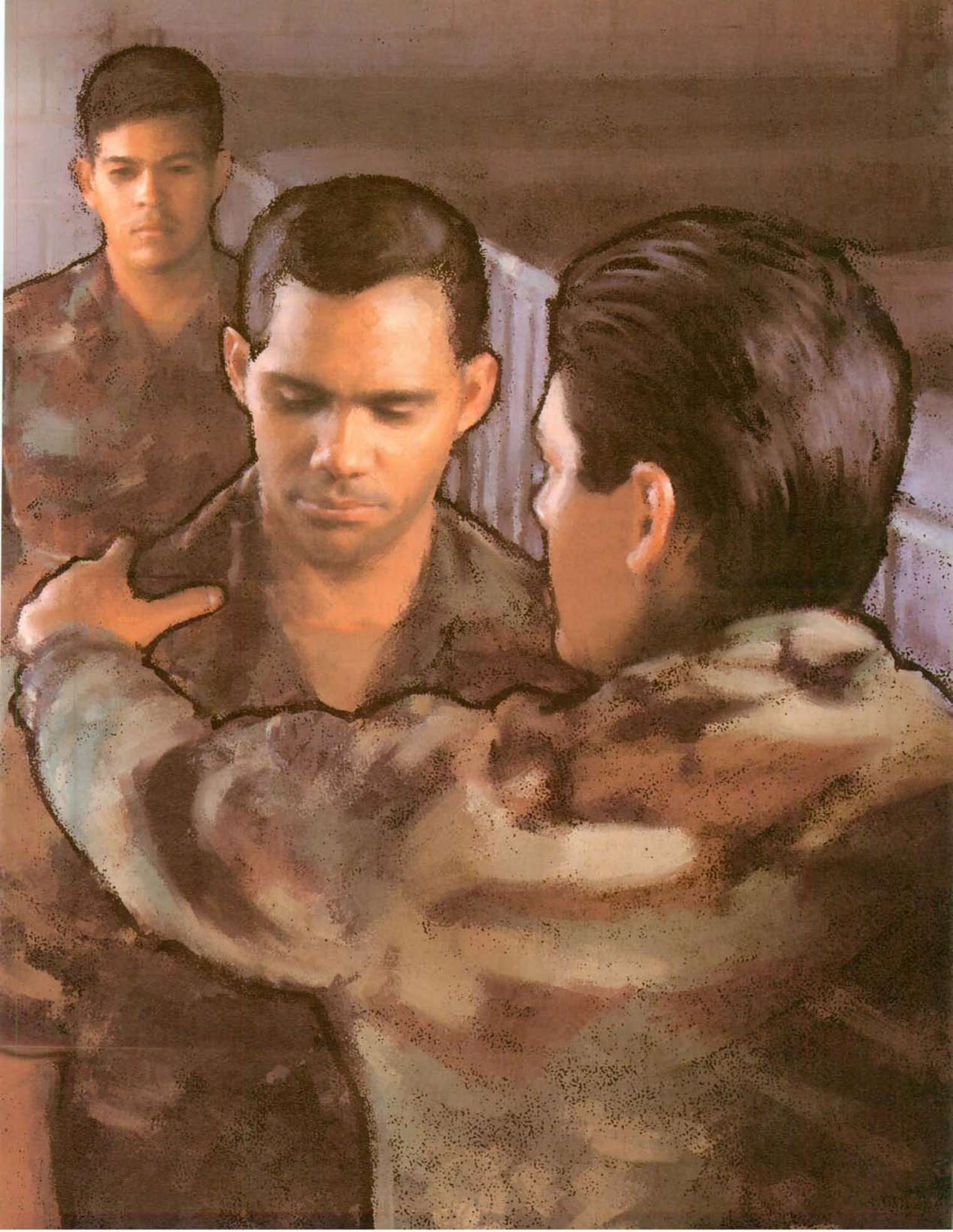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순종으로부터 오는 축복이나 모범의 힘을 완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구세주께서 저를 보호해 주시는 힘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분이 저의 곁에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경험으로 인하여 저에게 감명을 주었던 니파이삼서의 구절은 저의 마음에 영원히 새겨질 것입니다.

저는 빛과 모범을 보이도록 가르쳐 준 물론경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며칠 후에 동료 한 명이 저에게 와서, 그가 그 동안 두 명의 선교사를 만나 왔으며 다음주에 과야킬 시에서 침례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참된 교회에 속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저는 후에 주님을 위한 군병으로서 — 에콰도르 키토 선교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고 우리의 완전한 모범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카를로스 페레스는 에콰도르 프로스페리나 과야킬 스테이크, 갈레고스 라라 와드의 회원이다.



리아호나

2001년 2월호를 활용함

말씀, 반 공과, 가정의 밤 공과, 또는 세미나리 영적 모임을 위해 사용할 이야기나 인용문을 찾고 계십니까? 이번 호 *리아호나*에서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른 쪽의 숫자는 이번 호의 쪽을 나타냅니다. 친=친구들)

토론 제언: 교리와 성약 및 교회사

■ “영국에서 복음의 뿌리를 찾아냄”, 8쪽: 맬번 힐스, 존 벤보우 농장, 그리고 갯필드 엘름 예배당은 매우 중요한 장소로 여겨지는데 그것은 그 곳에서 초기의 교회를 강화해 준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서는 어떤 곳들이 지역 교회 역사의 중요한 장소로 여겨지는가?

■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가분의 증거들”, 14쪽: 고대 정전이 어떻게 현대의 계시를 위한 길을 준비했는지 토론한다.

■ “충실한 최초의 신자들”, 38쪽: 여러분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부모의 생애에서 배우는 여섯 가지 교훈을 어떻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

■ “이 계명들을 상고하라”, 16쪽: 여러분의 가족은 어떻게 교리와 성약의 “놀랍고도 영감에 찬 메시지”를 재미 있게 공부할 수 있는가?



이번 호의 주제들

가정 복음 교육	7
개종	30
교리와 성약	14, 48, 친16
교회사	8, 38, 48
구원의 계획	36
기도	25
산체스, 루스 카리나	친4
멜기세덱 신권	뉴스
모범	46, 친7
물문경	14, 30, 46
방문 교육	25
범세계적인 교회	8
봉사	30
부모의 역할	38
일부만 회원인 가족	26
사랑	30
선교 사업	26, 30, 36, 친7
성신	30
순종	25
신앙	38
신약 성서 이야기	친12, 친14
신체 장애	친4
아론 신권	2, 뉴스
역경	22
영원한 관점	22
예수 그리스도	14, 친12, 친14
예언자들	28, 친10, 친16
요셉 스미스 일세와 루시 맥	38
전세	36
초등학교	친10
침례	2
침례 요한	2
회복	14, 38, 친2

결혼과 가족 기사에 관한 의견

여러분의 결혼 생활과 가족을 강화시킨 경험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사와 이야기를 *리아호나*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Floor 24,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전자 우편 주소: CUR-LiahonaMag@ldschurch.org. 성명, 주소, 전화 번호, 와드와 스테이크(또는 지부와 지방부)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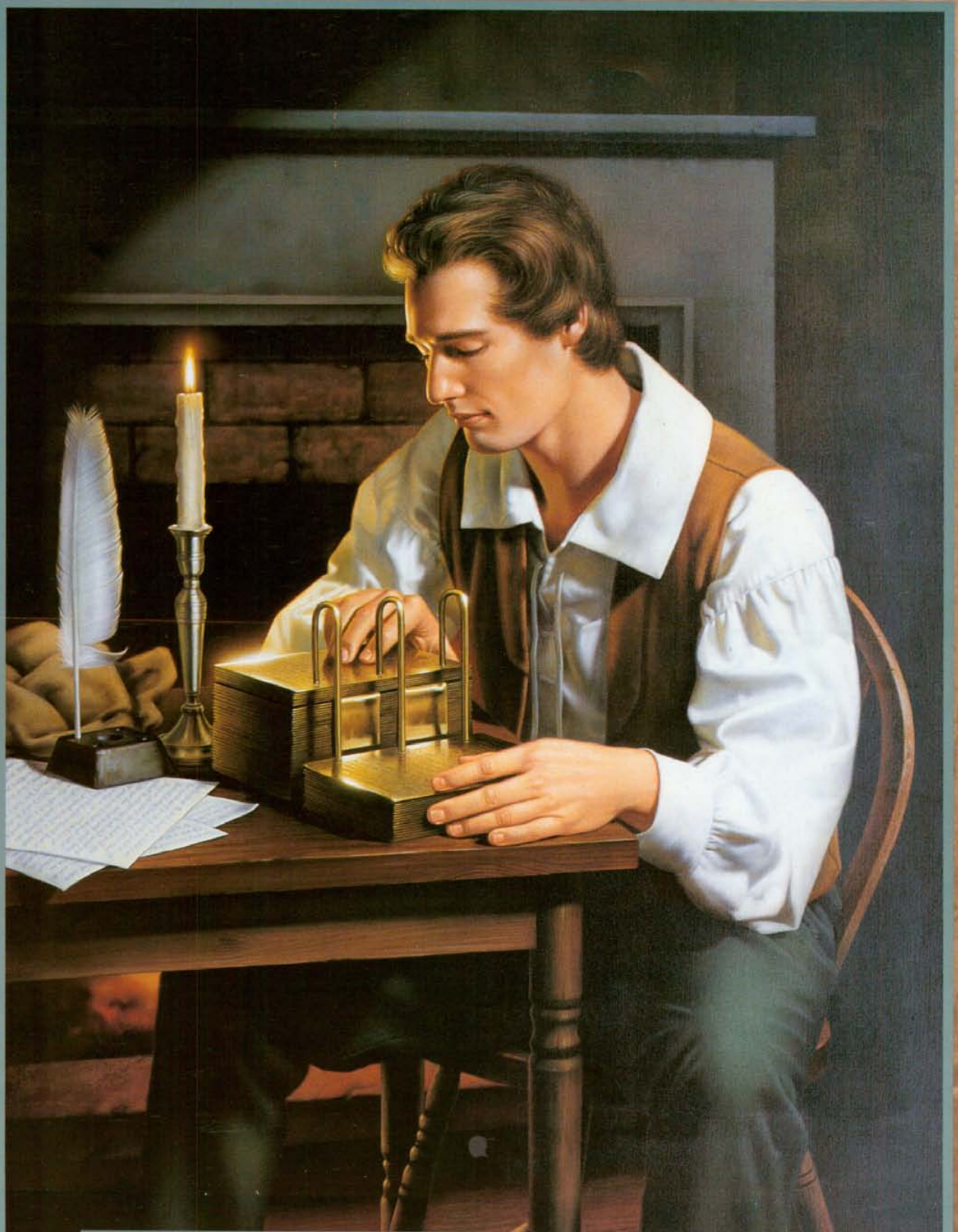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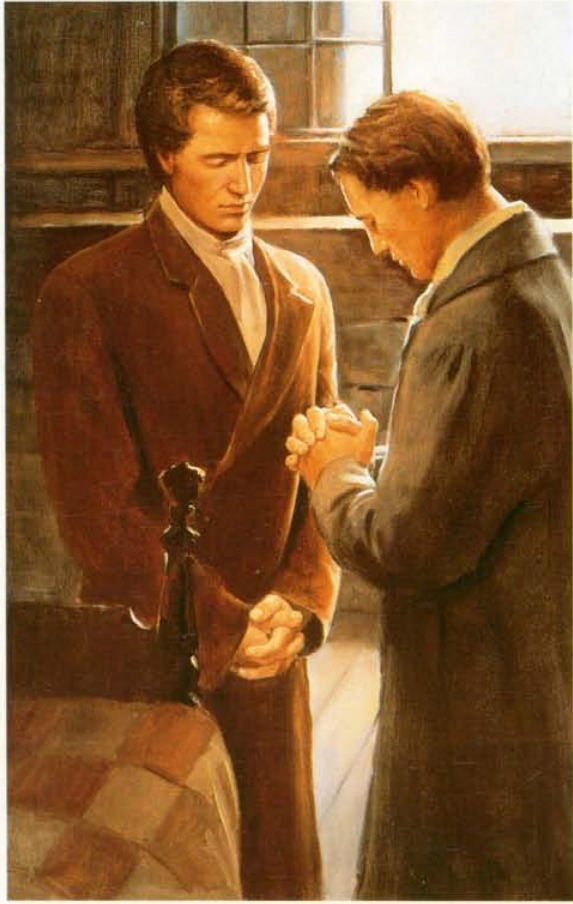


그림: 사이먼 듀이,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교회 역사 미술 박물관 제공, 제5회 국제 미술 경연 대회 출품작.

나의 종 요셉 스미스 이세가 ... 그 책, 곧 내가 명한 부분만을 번역하였으니,
너희 주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것 같이 그 번역은 참되도다."(교리와 성약 17:5~6; 또한 교리와 성약 135:3 참조)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올리버 카우드리와 다른
서기들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교리와 성약 135: 3) 몰몬경을 번역했다. 이
책은 “거룩한 경전이 참됨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감을 주시고 부르시사 ... 이 시대와 세대에 자신의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심을 세상에”(교리와 성약 20:11)
증명한다. 교리와 성약은 몰몬경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제2의 증거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가분의
증거들”, 14쪽 참조.



21982 320